

차례

인사말 (박홍근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국회의원)

독립전쟁 기념공원(기념관) 조성 사업

2026 기획 특집 :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 바로 세우기”

- 국군의 정통성 법제화 추진과 그 의미 (박석봉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전 육군사관학교 교수부장) 04
- 헌법정신에 따라 “국군의 정통성”을 법제화해야 한다. (황원섭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고문) 06

특별기획 1 : 광복 8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독립군:끝나지 않은 전쟁> 감상문 공모전 수상작

- 국회의장상 “교과서를 넘어선 역사, 가슴으로 만난 독립군” (박현준 충남 서산시 서일고 2학년) 08
- 광복회장상 “역사를 지킨 영웅 홍범도, 나는 글로 그분을 지키고 싶다” (최아론 경기도 김포시 유현초 5학년) 10

특별기획 2 : 민족영웅 홍범도 장군의 삶과 투쟁

- 민족영웅 홍범도 장군의 삶과 투쟁 (8) (반병률 홍범도아카데미 원장/한국외대 사학과 명예교수) 13

특별기획 3 : 고려인 이야기

- 대한 고려인의 현황과 이슈 (정영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대한고려인협회 회장) 18
- 고려인 독립운동가 소개 (1) 한창걸, 김미하일, 김규면 23
- (출처 :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정리 : 반병률 홍범도아카데미 원장/한국외대 사학과 명예교수)

행사 참관기

-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역사탐방을 다녀와서 (오현석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전 한국주택금융공사 본부장) 26
- 국군의 뿌리를 따라가다 (염동인 해군 잠수함사령부 홍범도함 전투체계관 소령) 28
- 독립군의 유산, 오늘날 우리에게 (이동환 해군 잠수함사령부 홍범도함 중사) 29
- 홍범도 장군님의 마지막 시간이 깃든 크줄오르다를 다녀오다 (남우기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정보통신기술사회 회장) 30
- 홍범도함장 이취임식에 다녀와서 (이요섭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주)쿠도해양기술 대표이사) 32

회원 기고

- 독립전쟁 계승 축구대회를 준비하며 (정우기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전 청강문화산업대 교수) 34
- 활쏘기는 어떻게 홍범도 홍상 철거 저항의 무기가 되었는가 (김경준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편집위원/독립기념관 연구원) 36

2025년 사업보고 및 2026년 사업계획

38

기념사업회 소식/행사

45

회원 동정, 신임 이사 인사

47

후원회원/임원/이사

52

독립전쟁 정신을 계승합시다!



박 홍 근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국회의원)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리고 홍범도 장군의 뜻을 함께 기리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박홍근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거센 역사적 격랑을 건너왔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내란 계엄의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의 힘으로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는 힘은 결국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진실을 다시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경험은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총을 들었던 홍범도 장군의 삶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과 실천 속에서 계속 완성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 기념사업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장군의 생애와 독립전쟁의 의미를 보다 넓고 깊게 알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추진한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의 제작과 개봉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제작발표회에서부터 전국 상영과 대중 홍보에 이르기까지, 장군의 무장항일투쟁과 대한독립군의 역사를 온전히 복원하고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또한 제5회 홍범도장군배 전국사격대회를 통해 우리는 장군의 '명사수'로서의 면모와 강인한 항전 정신을 오늘의 청년 세대와 연결하고자 했습니다. 전국의 선수들이 참여한 이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역사적 상징과 현재

의 도전을 잇는 살아 있는 교육의 장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홍범도아카데미 포럼을 통해 고려인 독립운동과 항일 언론 활동을 재조명하며 학술적 토대를 더욱 다져 나갔습니다. 국내외 연구자들과 함께 장군의 활동 무대였던 연해주와 중앙아시아의 독립전쟁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은, 기억을 넘어 연구와 기록으로 남기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역사 왜곡과 단편적 해석을 넘어, 사실과 자료에 기반한 공적 서사를 세우는 일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지난해 우리의 모든 활동은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의 뜻 위에 독립전쟁의 정신을 다시 세우고, 홍범도 장군의 이름을 오늘의 대한민국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길목에서, 우리는 과거를 기리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정신을 현재의 가치로 되살려야 합니다.

앞으로도 홍범도 장군의 삶과 투쟁이 대한민국 공동체의 굳건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책임 있게 나아가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박홍근 드림

독립전쟁 기념공원(기념관) 조성 사업



▲ 독립전쟁기념공원(기념관) 조성 상상도 (AI 생성)

2021년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이후 같은 해 12월 문재인 대통령 당시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 부지에 독립전쟁기념공원 조성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 이 사업은 사장되었다.

이에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는 독립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고, 이름 없이 싸우다 쓰러진 수많은 독립군들을 기리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시 정부에 제안을 하였다. 그 결과, 2026년 국가보훈부가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면서 독립전쟁기념공원(기념관) 조성 사업이 다시 추진될 예정이다.

독립전쟁기념공원은 독립군의 투쟁을 우리 역사 속에서 온전히 복원하고, 대한민국이 어떤 역사 위에 서 있는 나라인지 국민과 미래 세대에게 전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동시에 국민들이 독립전쟁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역사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또한 이름 없이 싸우다 사라진 무명 독립군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국가적 추모의 공간이기도 하다.

독립전쟁의 역사가 제대로 기억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뿌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우리에게 그 역사를 담아낼 공간이 필요하다. 독립전쟁기념공원(기념관)은 그 시작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독립기념관과 전쟁기념관이 있지만, 정작 독립전쟁 자체를 온전히 조명하는 공간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의 전시 역시 일부 잘 알려진 독립운동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많은 무명 독립군들의 투쟁과 희생을 충분히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봉오동전투와 청산리대첩을 비롯해 수많은 전투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독립군들은 이름 없이 스러져간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의 투쟁은 대한민국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온 독립전쟁의 역사이며, 우리 국군의 뿌리이기도 하다. 또한 이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기억해야 할 대한민국의 역사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그 역사를 더 이상 잊힌 채로 둘 수 없다.

국군의 정통성 법제화 추진과 그 의미



박석봉 (홍법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전 육군사관학교 교수부장)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의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의 적용 범위는 군인 외에 사관생도, 장교후보생, 소집 예비역, 보충역, 군무원 등에게 군인에 준해 적용되며, 또한 군에 관련한 다른 법률은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제정,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국가의 물리적 방패이자, 동시에 그 국가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정신적 근간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국군의 뿌리를 두고 벌어지는 소모적인 논쟁은 군의 자긍심을 깎아 먹고 국민적 분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군이 피동적인의 무수행 집단을 넘어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헌법 수호자’로 거듭나기 위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내 ‘국군의 강령’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행법	개정안
제5조 (국군의 강령)	제5조 (국군의 강령)
<신설>	① 국군은 독립군과 광복군의 자주독립정신을 계승한 국민의 군대이다.
①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	② 국군은 국가를 방위하고 헌법을 지지하고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 (항 번호 조정)
②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③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③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굳게 지녀야 한다.	④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굳게 지녀야 한다.

개정안의 의미와 필요성 몇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헌법, 국민적 합의 : 독립군과 광복군의 독립정신 계승

우리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시작은 결코 광복 후 정부수립까지의 과도기인 미군정기 경비대에서 탄생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제도적 한계로 인한 경비대를 군의 시작으로 인식함으로써 잃는 군의 정신전력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의 진정한 뿌리는 일제강점기 철혈 같은 어둠 속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군,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공식 정규군이었던 ‘한국광복군’에 있습니다.

독립군, 광복군의 독립정신은 결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광복 5년 후 마주한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 독립전쟁을 직접 치른 선배 전우들은 “다시는 나라를 빼앗길 수 없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불굴의 호국정신으로 승화시켜 북의 침략에 맞서 이겨냈습니다. 그들에게 6.25 전쟁은 단순한 이념의 대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되찾은 국가를 지켜내기 위한 두 번째 독립전쟁이었습니다. 이 정신은 헌법을 통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국민은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천명하였습니다. 이는 국군의 정통성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전쟁과 그 법통 위에 서 있음을 국가 최고 규범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신념은 이제 헌법적 선언이자 국민적 합의입니다.

능동적 정체성 : 국민의 군대

이러한 헌법적 선언은 대한민국 국군의 정체성이 단절이 아닌 계승의 역사 위에 서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군 스스로가 ‘독립전쟁 영웅들의 후예’라는 능동적 정체성을 가질 때, 군은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정치적 풍파에 흔들리는 조직이 아닌,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실질적 책임감’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군이 헌법적 가치를 명확히 인식할 때 국민의 신뢰는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군은 국민을 믿고, 국민은 군을 자랑스러워하는 이 단단한 연결고리가 바로 우리 안보의 핵심인

‘국민의 군대’입니다. 이러한 신뢰가 바탕이 될 때, 최근 우리가 겪었던 12·3 불법계엄과 같은 불행한 사태 속에서도 군은 흔들림 없이 ‘국민의 군대’로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국군의 정체성 확립은 전시작전권 전환(회복) 시기에 맞춰 한국군이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주도하는데 정신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병역의무 : 국민 통합의 장으로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제도는 갈등과 논란의 중심이 아니라 국민통합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국군의 뿌리가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호국의 오늘의 역사에 있음을 법규화하여 일찍이 젊은 시절의 장병들과 함께 한다면, 군복무는 더 이상 피동적인 희생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청년들이 당당히 국군에 입대하며 “나는 주권자의 권리를 지키는 독립군의 후예”라는 자각에 이를 때, 우리 군은 소모적인 정쟁을 넘어 국민통합의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병역제도를 국민 모두가 신뢰하고 발전적인 학습의 장으로 만드느냐는 우리 모두의 국민적 리더십에 달려 있습니다. 군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물리적 힘을 넘어, 국민의 마음이 모인 정신적 결집체일 때 국민의 방패로 강한 힘을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군인기본법 국군의 강령 제1항을 개정하는 이 작은 발걸음이,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을 법제화하고 우리 군을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바로 세우는 거대한 변화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헌법정신에 따라 “국군의 정통성”을 법제화해야 한다.



황 원 섭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고문)

우리 헌법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 수립 당시 국방부 장관 훈령 제1호에 “국군의 역사는 독립군과 광복군을 계승하여 창군한다”고 공표하였다.

그러나, 6.25전쟁을 계기로 일본군 출신들이 득세하면서 우리 국군은 1946년 국방경비대가 국군의 연원이라고 왜곡하였다.

필자는 2011년 신흥무관학교 개교100주년 기념사업을 하면서 이를 확인하고, 그해 5월 KBS 방송에 출연하여 우리 국군은 역사적 사실과 헌법정신에 따라 의병, 독립군, 광복군을 계승하여 창군했다고 주장했다. 임시정부에서는 광복군을 창건하면서 경과보고에서 “1907년 조선군대가 해산되면서 의병, 독립군을 계승하여 광복군을 건군한다”고 하고,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독립운동단체와 학계의 지속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국군은 독립군, 광복군을 계승하여 창설했다고 공포하고, 육군사관학교에서는 2018년 3월, 홍범도 장군 등 독립전쟁 영웅 다섯 분의 흉상을 건립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방부에서는 국군은 1946년 국방경비대에서 출범했다고 번복하고, 국방부와 육군

사관학교에서는 2023년 8월 교내 충무관 앞에 설치된 독립전쟁 영웅 흉상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광복회와 독립운동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반대 운동의 명분은 첫째, 육사에서는 우리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과 광복군을 계승한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흉상 철거는 헌법정신과 역사적 계승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둘째,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입당은 당시 소련이 독립운동 과정에서 우방이었으며,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주장하고, 현재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색깔론’이라고 비판했다. 셋째, 2018년 흉상 건립 당시 국민적인 합의가 있었음에도 정권에 따라 역사를 변경하는 것은 국론분열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육군사관학교에서는 2025년 5월 말, 홍범도 장군 등 독립전쟁 영웅5인의 흉상을 현재 위치에 영구 존치하겠다고 확인하고, 광복회장을 방문하여 전달했다.

이와 같이, 국군의 정통성과 역사를 정권에 따라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군의 역사를 법률로 명시해야 된다고 보고, 독립운동 관련 단체와 학계에서는 국회에서 헌법 제74조 2항에 의한 국군조직법을 개정하여 국군의 역사를 법제화자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4년 10월, 부승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국

군조직법을 개정하여 국군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 개정안에서는 국군은 ‘정권의 군대’가 아니라 ‘국민의 군대’이며, 그 근간이 항일 독립전쟁에 있음을 법률로 확정하려는 것이다.

작년까지 여러 차례 공청회를 열어 독립운동 단체 및 전문가들이 함께 ‘국군의 정체성 바로 세우기’를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창군의 역사는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미국은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취임한 1789년이 아니라, 1775년 대륙군 창설일을 미국 육군의 기원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 이후 왕정과 공화정이 반복되었지만 1789년 시민군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때를 군의 기원으로 하고 있다. 심지어 북한 김일성도 1948년 창설된 소련 괴뢰군이 아니라 1932년 김일성의 항일유격대에서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위 뉴라이트 일부 학자나, 친일파 군인 출신의 후예들이 식민지배를 합법화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역사와 주체성을 부인하려는 망동은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우리 정부에서는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경술국치는 강제로 체결되어 국제법상 당연히 무효라고 선언하고, 한일기본조약에서도 명기하였다. 아직도

헌법정신과 독립운동을 부인하고, 미군정에서 한국군을 창립했다는 편견은 반드시 극복해야 될 역사적 사명이다.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국군조직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우리 국군은 독립군과 광복군의 역사를 계승하여, 국민의 군대로 거듭 태어나야 하고, 국민들의 자존심과 국군의 사기를 회복해야 될 것이다.



특별기획 1 : 광복 8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 감상문 공모전 수상작

국회의장상 “교과서를 넘어선 역사, 가슴으로 만난 독립군”

박 현 준 (충남 서산시 서일고등학교 2학년)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다큐멘터리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을 보면서 나는 단순히 영화 한 편을 본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는 긴 여정에 동참한 느낌을 받았다. 사실 처음에는 다큐멘터리라는 장르만 듣고도 조금 지루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평소 드라마나 영화처럼 극적인 줄거리를 따라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독립군 이야기는 교과서와 역사책에서 수없이 접해온 주제라, 새로운 감동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하지만 영화가 시작된 순간, 내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다. 단순히 사건과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공연처럼 역사를 보여주었다. 전투 장면을 무용과 안무로 재현한 부분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다. 처음에는 전쟁을 춤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낯설었지만, 배우들의 몸짓 하나하나가 긴박한 공포와 절박함을 그대로 전달해주었다. 빠르게 땅을 딛는 발걸음에서 적의 추격을 피하는 독립군의 숨결이 느껴졌고, 서로 부딪히며 휘청거리는 움직임 속에서 총칼이 오가는 처절한 싸움이 전해졌다. 전쟁을 단순한 기록이나 사진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몸과 영혼 속에서 느껴지는 현실임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큰 울림을 주었다.

영화 속에서 특히 크게 다가온 인물은 홍범도 장군이었다. 나는 이전까지 그를 단순히 ‘청산리 전투의 영웅’으로만 알고 있었다. 교과서 속에서 그는 늘 당당하고 용맹한 장군으로 소개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화에서 나는 조금 다른 홍범도를 보

았다.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 차별과 가난을 겪었던 어린 시절, 그럼에도 민족을 위해 스스로를 내던진 용기, 그리고 끝없는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독립군을 이끈 삶은 화려한 영웅담이 아니라 치열한 현실 속 선택의 연속이었다. 그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과연 나였다면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솔직히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었다. 나였다면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그 상황에서 민족을 위해 싸웠고, 그 점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영웅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시대가 요구할 때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영화가 더 특별했던 이유는 홍범도 장군만을 다루지 않고, 기록조차 남지 않은 무명의 독립군까지 함께 비추었다는 점이다. “무명의 독립군을 기억하라”는 메시지는 영화 내내 반복되었고, 그 말은 마치 내 마음에 못을 박듯 강하게 남았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큰 사건의 이름만 기억한다.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 같은 이름은 시험에 단골로 등장한다. 하지만 그 전투 속에서 싸웠던 수많은 청년들의 이름은 알지 못한다. 기록조차 없이 어디선가 쓰러져간 이들도 많다.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떠올리며 묘한 죄책감과 감사함을 동시에 느꼈다. 이름 없는 희생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역사를 배우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영화는 과거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로 시선을 돌렸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과 육사 홍상 철거 논란은 처음에는 정치적 문제로만 보였지만, 그것이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지워가는지, 우리가 역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치라는 것을 깨달았다. 독립군이 싸운 전쟁은 단순히 일본 제국주의와 맞선 것이 아니라, 올바른 나라를 세우고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역사 왜곡, 부정과 불의, 민주주의 위협 같은 사건도 또 다른 의미의 전쟁일 수 있다. 영화가 전하는 ‘끝나지 않은 전쟁’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나는 교과서 속 역사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 그동안 나는 독립운동을 연도와 사건 이름으로만 기억해왔다. 1919년 3·1 운동, 1920년 청산리 전투, 1940년 한국광복군 창설 같은 것들이었다. 하지만 영화는 그것이 단순한 연표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 숨쉬던 사람들의 삶과 고통, 희생으로 이루어진 역사임을 알려주었다. 나와 비슷한 나이의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사실을 떠올리니, 시험 문제 속 ‘독립군’이라는 단어가 전혀 다르게 다가왔다. 그것은 더 이상 지식이 아니라 오늘 나의 내가 짊어져야 할 책임처럼 느껴졌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독립’은 무엇일까? 과거에는 나라를 되찾는 것이 독립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독립은 자유와 민주주의, 정의를 지켜내는 일일지도 모른다.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불평등과 차별이 존재하고, 때로는 민주주의의 가치가 흔들리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 독립군이 보여준 용기를 오늘의 방식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친구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모른 척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것,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정보를 찾는 것, 역사를 단순한 시험과목이 아닌 삶의 지혜로 받아들이는 것. 이런 작은 실천이 끝나지 않은 전쟁을 이어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이 영화를 통해 내 삶의 태도를 돌아보게 되었다. 때때로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만, 독립군이 남긴 정신을 떠올리면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것 같다. 앞으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 나는 이 영화를 떠올리며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싶다.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게 만드는 영화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었다. “너는 지금 어떤 전쟁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물음 앞에서 나는 한참을 가만히 생각하게 되었다. 결국 그 답은 내 삶 속에서 만들어가야 할 것이며, 그 과정이 바로 끝나지 않은 전쟁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앞으로 역사를 단순한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힘으로 삼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독립군의 희생과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 정신을 작은 실천으로 이어가는 것이 내가 이 영화를 통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며 다짐이다.

나는 이 영화를 보고 난 뒤 한동안 마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내 또래의 청년들이었고, 나와 비슷한 고민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며, 그럼에도 조국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쳤다. 그 사실을 떠올리면 지금 내가 겪는 고민과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졌다. 나는 이 영화를 통해 과거를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또 한 이 깨달음은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다. 영화가 끝난 후에도 그 장면과 대사,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마치 내가 그 시대 속에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숨결과 결연함이 내 마음에 남았다.

이제 나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힘들거나 흔들릴 때마다 이 영화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고 싶다. 끝나지 않은 전쟁은 과거의 독립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며, 나 역시 그 전쟁을 이어가야 하는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

※ 편집자 주

본 소식지에서는 영화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을 통해 독립전쟁의 역사와 의미를 되새기고자, 2025년에 진행된 전국 학생 감상문 공모전의 입상작을 연재합니다. 입상작은 매 호 2편씩, 총 4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영화를 통해 느낀 독립군의 역사와 그 의미를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기획 1 : 광복 8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 감상문 공모전 수상작

광복회장상

“역사를 지킨 영웅 홍범도, 나는 글로 그분을 지키고 싶다”

최 아 론 (경기 김포시 유현초등학교 5학년)

1. 영화 속에서 잊혀진 영웅을 만났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든 월요일.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오늘은 학교 가지 말자”라고 하셨다.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학교를 안 간다고? 진짜? 나는 신나서 벌떡 일어났다. 매일 바쁘신 엄마랑 둘이서만 데이트라는 것도 좋았지만, 더 신났던 건 내가 좋아하는 역사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러 간다는 거였다.

영화는 새로 개봉했다고 했는데, 상영관은 별로 없었다. 그래서 김포에서 멀리 인천까지 차를 타고 갔다. 그런데 극장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영화 시간이 다 됐는데도 문이 안 열리는 거다. 알고 보니 관람객이 너무 적어서 우리밖에 없었던 거다. 하지만 생각을 바꿨다. 월요일 아침 관객은 엄마와 나, 단 두 명! 나는 순간 “우리가 특별한 손님인가?” 싶어서 기분이 묘하게 좋았다. 마치 타임머신 타고 역사 여행을 떠나는 두 명의 탐험가가 된 기분이었다. 그런데 막상 영화를 보기 시작하니 조금 부끄러웠다. 나는 10년 뒤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 소설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다. 하지만 “역사 소설가가 되겠다는 내가 홍범도 장군을 제대로 몰랐다고?” 이런 생각이 머리를 광하고 쫓다.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안중근 의사 같은 분들은 학교에서 여러 번 배우고 시험에도 나오니까 잘 알았다. 하지만 홍범도 장군은 이름만 얼핏 들어본 적 있을 뿐, 자세히는 몰랐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장군의 이야기가 펼쳐질수록 얼굴이 화끈거렸다. 위대한 분을 이렇게 몰랐던 내가 너무

부끄러웠다.

영화를 보러 갈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독립운동가, 홍범도>라는 책과 <who? 한국사 - 홍범도>라는 책을 챙겨갔다. 홍범도 장군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고, 아홉 살에 아버지까지 잃은 불운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머슴살이를 하며, 절에서 불을 지피며 밥을 얻어먹어야 했던 모습을 상상하니 ‘만약 내가 저 상황이라면 버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로서는 상상조차 힘든 일이었다. 홍범도 장군은 나중에 사냥꾼이 되어 호랑이를 잡으며 살아갔다. 총을 잘 쏘는 명사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날오는 장군’, ‘백두산 호랑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일본이 나라를 빼앗자 그는 그 총을 더 이상 짐승에게 겨누지 않았다. 대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들었다. 사냥꾼에서 독립군 총사령관으로 바뀐 것이다. 이 장면에서 나는 나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면서 긴장이 되기도 했다. “평범한 사람도 나라를 위해 이렇게 큰일을 할 수 있구나.” 나는 아직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지만, 나도 언젠가는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다. 그렇게 영화 관람을 이어갔다.

2.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영화에서 가장 긴장되었던 장면은 바로 봉오동 전투였다. 1920년 여름, 일본군은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다. 그들은 조선인을 앞잡아 보았다. 하지만 홍범도 장군은 산세를 잘 아는

포수들과 함께 작전을 짰다. 삿갓처럼 생긴 골짜기, 봉오동으로 일본군을 유인한 것이다. 일본군이 골짜기로 들어왔을 때, 장군이 외쳤다.

“전군, 사격하라!”

그 순간, 산 곳곳에서 총성이 울렸다. 매복해 있던 독립군의 총알은 번개처럼 쏟아졌다. 일본군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공격에 크게 무너졌다.

나는 극장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내가 독립군이 된 것처럼 심장이 쿵쾅거렸다. “싸우면 진다”는 말이 아니라, “싸우면 이길 수도 있다”는 희망이 역사 속에 있었음을 눈으로 본 순간이었다. 이후 벌어진 청산리 대첩은 더 큰 전투였다. 김좌진 장군과 함께 싸운 청산리 전투는 열흘 동안 이어졌고, 일본군 2만 명을 상대로 싸워 대승을 거뒀다. 총검을 들고 돌격하는 독립군의 모습, 주먹밥을 쥐어주던 백성들의 책 속 글과 영화 속 장면이 겹쳐 보였다.

사실 나는 지난 8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당당히 합격했다. 아직은 기본 시험이지만 다가오는 2월에는 심화 과정의 시험을 보게 된다. 8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사 공부를 하면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을 외었다. 시험 공부할 때는 단순히 ‘연도’와 ‘전투명’, ‘지휘관 이름’을 외우는 데 급급했는데, 영화를 보니 그 숫자와 이름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그때 깨달았다. “역사는 시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피와 눈물로 이루어진 삶이었다는 것”을 말이다.

3. 바다의 이순신, 산의 홍범도

영화를 보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이순신 장군을 떠올렸다. 책에서 본 난중일기도 생각났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 바다를 지켰다. “아직 배가 남아 있다”라는 말은 지금도 유명하다. 반대로 홍범도 장군은 나라가 이미 사라진 뒤, 산에서 독립군을 모아 싸웠다. 두 분은 시대와 무대는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백성과 함께 했다는 점.

절망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점.

나는 상상해 봤다. 만약 이순신 장군과 홍범도 장군이 같은 시대에 만났다면 어땠을까? 한 분은 바다에서, 다른 한 분은 산에서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외쳤을 것이다. 나는 그 옆에서 박수 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바다에는 이순신, 산에는 홍범도.”

한 분은 나라를 잃지 않게 했고, 다른 한 분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싸웠다. 두 분 다 대한민국의 기둥이었다.

4. 2023년 홍상 이전 논란

영화의 맨 앞부분에서 나는 낯선 장면을 보았다. 바로 2023년 홍범도 장군 홍상 이전 논란이었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 영화를 보고 나오자마자 엄마에게 물었다. 어떤 사람들은 장군이 러시아 공산당에 가입했었다는 이유로 홍상을 치우자고 했다. 하지만 내가 영화를 보면서 알게 된 건 딱 하나였다. 홍범도 장군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독립군 장군이었다. 나는 그때 이상한 상상을 해 보았다. 만약 누군가 이순신 장군 동상을 치우자고 한다면?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부터 어른까지 모두 거리로 뛰어나왔을 것이다. 그런데 홍범도 장군 홍상은 실제로 치워질 뻔했다. 그건 우리가 그분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행히 지금은 홍상이 육사에 남아 있다. 2025년에 장군의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안도했다.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다. 역사는 알지 못하면 지워지고, 아는 만큼 지켜진다. 내가 열심히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5. 내가 배운 것과 앞으로의 다짐

이 영화를 보고, 또 역사 공부를 하면서 나는 세 가지를 확실히 배웠다.

아무리 힘없고 가난해도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싸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싸우면 이길 수도 있다는 것.

역사는 시험 문제가 아니라, 살아 있는 이야기라는 것.

나는 초등학교 4학년이지만, 지난 8월에 한국사능력검정 시험에 합격했다. 합격증을 받았을 때, 나는 너무 기뻐서 방방 뛰었다. 그때 느꼈던 자신감이 영화를 보면서 더 커졌다. “아, 내가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나는 단순히 역사를 배우는 학생이 아니라, 언젠가 역사를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글을 좋아하는 나에게 글은 총알이 될 수도 있고, 방패가 될 수도 있다. 홍범도 장군이 총으로 나라를 지켰다면, 나는 글로 역사를 지키고 싶다.

6. 결론

홍범도 장군은 단순한 독립운동가가 아니다. 그는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이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영웅이다. 이 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나라를 지켰다면, 홍범도 장군은 산에서 독립의 희망을 지켰다. 나는 대한민국의 모든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웅을 제대로 알고 있나요?”

이제 나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다.

“예, 홍범도 장군은 영원히 기억해야 할 독립 영웅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기록하는 작은 역사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의 글 한 줄이 역사를 지키는 총알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그 총알을 아끼지 않고 쓰겠다. 오늘 내가 쓴 이 감상문이, 나와 내 친구들이 역사를 기억하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민족 영웅 홍범도 장군의 삶과 투쟁 (8)



반 병 루 (홍범도아카데미 원장/한국외대 사학과 명예교수)

홍범도와 자유시참변

1930년대 스탈린대탄압의 광풍에서 살아남은 항일혁명가들의 회상기를 통하여 항일혁명운동의 역사를 복원하고자 했던 이인섭은 자유시참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놓았다.

“처음에는 장교회의, 그다음에는 군인회를 하면서 자유대대와 단합하라고 강요하였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1921년 5월 21일 최후명령으로 단합하지 아니하면 무장해제를 한다고 명령하였다. 동시에 칼란다리쉬빌리한테는 무장 폭동을 준비한다고 거짓 정보를 전하여서 총 한 방도 아니 놓고 있는 조선 빨치산 부대에 대포 사격을 시작하고 동시에 달려들어 그루진 군인들이 허영장 군대를 총살하고 나창으로 질러 죽이었다. 당시 평양 5형제파라던 강영렬 청년은 성명하기를 “나는 차마 붉은 군인이나 제 민족을 대항하여 죽이지도 못할 일이고 무죄하게 그들에게 죽기도 애매하니 자충한다” 하고 자살하니, 그 부대 대원들은 총을 끌어안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제야강에 빠져 죽기 시작하니 그루진 군인들은 총질을 정지하였다. 그리하여 24명이 총살을 당하고 수십 명이 물에 빠져 죽은 군인은 단지 허영장 의군부, 간도에서 당도하였던 군인들뿐이었다.”(이인섭, 『최고려자서전을 연구하다가 자기 소감』, 40~41쪽)

위 인용문에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자유시 참변이 벌어졌던 수라츠헤카 마을 현장에서 희생당한 군인들 대부분이 허근(허재욱)이 이끌던 총군부(구체적으로는 의군부) 소속이었다.(적게는 현장 피살 36명, 많게는 부상 후 병원에서 사망한 4명 포함 41명)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은 자기들을 무력 진압하고자 쳐들어오는 그루지아인(Georgian) 병사들에 맞서 싸우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당시 자유시참변의 현장에서 희생된 군인들(의군부 소속) 대부분이 봉오동전투를 겪고 자유시로 온 홍범도의 동지들이었다. 그리하여 간도15만원탈취 사건(1920년 1월)의 주역 최계립(최봉설)은 “홍범도 장군이 장교들과 같이 이때 술밭 속에 모여 땅을 치면서 통곡하던 일이야 어느 때든지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라고 회상하였는데, 이는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최계립이 김세일에게 보낸 편지(1957년 11월 10일 자))

둘째로 공격해 들어오는 상대에 맞서 싸울 의지 없이 무방비 상태에 있던 간도 독립군들을 일방적으로 무력 진압한 것은 고려혁명군정의회 소속 코카서스 그루지아(Georgia) 출신의 빨치산들, 즉, 고려혁명군정의회 의장겸 총사령관인 칼란다리쉬빌리가 이르쿠츠크로부터 데리고 온 직속 기마병들이었다. 일부 기록들에서 한인군대들, 특히 자유대대 소속 군인들이 사할



린특립의용대측 군인들을 직접 총살하고 찢어 죽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자유시참변 직후 참변 현장인 수라썩카 마을에서 전장소제(戰場掃除)를 지휘했던 김승빈은 이인섭에게 쓴 편지(1959년 1월 24일 자)에서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그날 밤에 사변이 시작하여 그 이튿날 우리 군대와 채영이가 영도하는 전(前) 싸투(특립)의용군 하사양성소, 즉 이 사변에 참가하지 아니한 두 군대의 인원을 동원하여 전장을 소제하였는데, 전사자 30여 명을 모아 매장할 때에 전사자 중에서 강영렬을 발견하여 그가 전사된 줄로만 알고 있었지 자총한 줄은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승빈의 회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바, 홍범도와 홍범도 군대(대한독립군) 군인들이 자유시참변 당시 무력진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설사 한인 장교나 병사들을 진압 작전에 투입했다고 하더라도 후방엄호, 통역, 안내, 전장소제 등의 지원이나 보조적 업무에 참여한 정도로 직접적인 무력 진압(총격전)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다.

고려혁명군대의 이르쿠츠크 이동

이르쿠츠크에 본부를 둔 국제공산당 원동비서부에서 자유시의 고려혁명군정의회에 “고려혁명군대를 만주로 출동할 계획을 정지하고 속히 군대를 영솔하고 일크쓰크로 입래하라”고 지시한 바, 이는 종래의 고려혁명군정의회의 급진노선의 전환, 즉 사실상의 폐기를 의미했다. 전회에서 언급한 것이지만, 그동안 슈미야츠키(Boris Shumiatsky)와 고려혁명군정의회가 내세웠던바, 통합후 만주를 거쳐 국내로 진공한다는 강경 급진노선은 홍범도 등 간도 독립군 지휘자들이 고려혁명군정의회에 합류하게 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따라서 이르쿠츠크로 들어오라는 국제공산당 원동비서부의 명령은 독립군의 통합과 정비 후 만주를 거쳐 한반도로 진격하여 일본군과 일전을 벌일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간도의 독립군 군인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당시 고려혁명군측에서 활동하고 있던 이지택은 “군정의회에서는 각군대표로 임시확대회의를 소집하고 토의하였으나 간도계의 군인들은 이르쿠츠크행을 극력 반대하였기 때문에 사령관 칼란다리쉬빌리의 입장이 난처해졌다”고 회상했다. 국제공산당 원동비서부에서는 “전군을 인솔하고 이르쿠츠크로 오라는 독촉이 심했고, 간도 독립군들은 한사코 제2의 수랍츠크 사

변’을 당할지도 모르는 군정의회 처사에 불응하고 나섰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지택, 「고려혁명군」, 『월간중앙』 58호(1973년 1월호), 298쪽)

국제공산당 원동비서부측은 한인빨치산들을 군사적, 정치적으로 교육하여 일꾼으로 양성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이는 홍범도 등 간도 독립군들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이기도 했다. 소비에트정부나 국제공산당의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외교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완충지대’인 원동공화국 보다는 소비에트러시아 영토인 이르쿠츠크가 적절하였다. 일본군의 철수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급진노선을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자유시참변 2개월 후인 1921년 8월 그믐 무렵에 고려혁명군정의회 소속 군대 1,745명(코사크기병 및 중국 병사 제외)이 이르쿠츠크에 도착한 직후 고려군정의회는 해소되고 소비에트 적군 제5군단 직속의 ‘조선여단’으로 개편되었다. 여단장에는 칼란다리쉬빌리가, 군정위원장에는 박승만이 임명되었다. 홍범도는 제1대대장에 임명되었다. 칼란다리쉬빌리가 10월 3일 사임하자, 부여단장인 오하목이 승진발령되었다. 이청천은 여단 부속 사관학교 교장으로, 사관학교 제1중대장에 채영, 제2중대장에 김승빈이 선임되었다.

제약된 정보와 통제 속에서

이르쿠츠크에 도착한 이후 간도독립군들은 자신들의 활동범위를 러시아측의 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졌다. 홍범도와 최진동이 상해파 고려공산당 간부인 김동한과 공동명의로 제출한 1922년 2월 소비에트정부 군사혁명의회 참모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는 간도 독립군들이 이르쿠츠크에서 처하고 있었던 제약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우리는 신체적, 도덕적 압박 속에 놓였으며, 자신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르쿠츠크의 상황에서 그러한 시도를 하는 것이 미친 짓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소리는 세계혁명의 지도자들이 있는 곳, 모스크바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둠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모스크바에 가서 우리의 비극적인 곤경과 독립군 동지들에 대한 총살 사건에 대한 모든 진실을 말하고 싶은 열망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이 애끓은 갈망을 비밀스럽게 간직한 채 우리는 고통스럽게 갈망하던 시기의 도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최진동.홍범도.김동

한, 「조선독립군 운동에 관한 보고서-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와 러시아공화국 군사혁명위원회 참모총장」 1922년 2월).

명의를 도용한 날조된 ‘선언서’

자유시참변의 가해자인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은 자유시참변에 대한 내외의 비판에 직면하자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간도독립군 지도자들을 활용하였다. 첫째로 자유시참변 3~4개월 후에 2개의 ‘선언문’, 즉 「우리 고려 노동군의게」(1921.9.15.), 「경고문(자유시사변에 대한 의병장들의 포고)」(1921.10.1.)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이들 ‘선언서(manifesto)’들은 피해자인 상해파를 비판하고 자유시참변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가해자인 이르쿠츠크파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한 문건들이다. 이들 ‘선언서’는 홍범도, 허근(허재옥), 최진동, 이청천, 안무 등 ‘각의병대 영수’와 ‘고려공산당 중앙간부’ 즉,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과 공동명의로 발표되었다.

이 ‘선언서’는 “마룩적(麋鹿的) 애국주의로 참된 혁명에 죄孽(罪孽)인 개인적 영예와 지반(地盤)을 모(謀)코져 하여 골육상쟁의 참극을 환영(幻影)케 하였도다,” “부요가(富饒家)의 전치(前齒)를 감작(甘作)하던 황색정객(黃色政客)들”, “허영에 구치(驅馳)하야 자가(自家)의 명예를 조획(釣獲)하려는 소위 정객과 모군대 장교및 적탐배(賊探輩)들은 만반(萬般)으로 음모하야 질서가 정연하여 가는 군대로 하여금 골육전에 혈류(血流)하는 참상으로 변화하게 되었도다” 등의 사실왜곡과 모함적 표현으로 가득차 있다. 그리하여 이 ‘선언서’는 한인부 간부들과 사할린특립의용대측 장교들을 ‘일본의 정탐배’, ‘명예와 부를 쫓는 황색정객’으로 매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골육상잔의 자유시참변의 책임을 들씌웠다.

자유시참변 당시 현장에서 피살된 군인들 대부분이 간도독립군 군대 소속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홍범도를 비롯한 간도독립군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여 자유시참변을 정당화하는 ‘선언서’에 이름을 올렸을까? 이해할 수 없는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앞에서 인용한 바, 홍범도와 최진동이 상해파 고려공산당 간부인 김동한과 공동명의로 1922년 2월 소비에트정부 군사혁명의회 참모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 홍범도와 최진동은 이 ‘선언서’에 자신들의 명의를 도용된 사정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르쿠츠크 고려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고려혁명군 지도

자들은 아무르 사변에 놀란 나머지 그 범죄를 덮기 위하여 선언서를 발표하여 모든 책임을 다른 이들, 즉 대부분의 독립군에게 전가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러한 부끄러운 ‘선언서’에 우리의 명의로 서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모든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우리는 서명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소용없음을 알고는 우리들의 동의 없이 우리의 이름을 넣고 ‘선언서’를 배포하였습니다. 그들은 혁명적 조선의 분노한 여론을 진정시키고자 했지만, 우리는 그들이 자신들의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혁명적 조선의 소리는 오래전부터 그들에게 판결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우리는 저 ‘의병대의 적(enemy partisans)’들이 작성한 ‘선언서’에 들어있는 우리의 명의를 날조된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 간부들이 다각도로 최후통첩을 보내어 홍범도 등 간도독립군 지도자들에게 ‘선언서’에 서명할 것을 홍범도 등이 거부하자, 이들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발표한 것임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홍범도 등 간도독립군 지도자들과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 중앙간부의 공동명의로 발표된 ‘선언서’를 보았을 때 이들의 명의를 도용된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상해파 고려공산당 인사들이나 사할린특립의용대 군인들은 오랫동안 홍범도 등 간도독립군 지도자들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신민단 단장으로 한인사회당과 고려공산당 핵심 간부였던 김규면은 자신의 회고록 「노병 김규면의 비망록에서」에서 자유시참변 이후 홍범도의 행적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자유시에 왔다가 자유시토벌에 군대들이 무장해제당한 후 홍범도는 단신으로 슈마쯔끼에게 대접받으면서 모스크바까지 행세하면서 자유시토벌이 유감이 없는듯이 시키는 대로 말하며 돌아다니는 것이었다. 슈마쯔끼 일파는 홍범도는 조선독립군의 총지휘자처럼 떠돌어 소개하면서 자기를 범죄 사변을 완회시키려고 홍범도의 변호 비판을 요구하는 충동이었다.”

사할린특립의용대 장교들에 대한 재판

홍범도는 자유시참변 당시에 체포된 사할린특립의용대측 장교 50명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위원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였다. 이르쿠츠크로 압송된 사할린특립의용대 소속의 독립군 장교들은 이르쿠츠크 감옥에 감금되어 있다가 1921년 11월 27

일부터 30일까지 이르쿠츠크파=국민의회파가 주도한 고려혁명군법원에 의하여 재판장을 받았다. 고려혁명군 여단 정치부장인 채동순을 재판위원장으로, 홍범도와 박순만을 위원으로 한 재판부에서는 3명에게 2년 징역, 5명에게 1년 징역, 그리고 24명에게는 1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나머지 17명은 방면하였다. 판결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할린특립의용대 장교들 가운데, 그리고리예프(러시아인), 김민선, 최파벨, 박그리고리 4명은 반란죄로 징역 2년을 받았는데, 박그리고리는 “신임인의 보증에 의하여” 석방되었다. 당시 원동민족혁명단체 대표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이르쿠츠크에 집결해 있던 여운형, 김규식 등 이른바 일단의 조선대표들이 배심원으로 동원되었다.

이처럼 자유시참변 재판에 회부된 사할린특립의용대측 장교들에게 다소 경미한 판결이 내려진 것은 재판 2주 전인 1921년 11월 15일 국제공산당 검사위원회가 채택한 ‘조선문제 관한 결정서’ 때문이었다. 자유시참변과 관련하여 이 결정서는 양측에게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원동비서부, 즉 슈미야츠키가 이르쿠츠크파만을 편파적으로 원조한 것이 상호충돌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검사위원회는 러시아공산당 중앙위에 ‘흑룡주사건을 조사할 유력한 검사위원’을 선출하여, 원동비서부에 의하여 체포된 박애를 해방하여 모스크바로 파견할 것과 자유시참변으로 투옥된 80여명 가운데 검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곧바로 해방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홍범도가 사할린특립의용대측 장교들에 대한 재판에 위원으로 참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홍범도가 남긴 기록들 가운데서 재판에 관하여 언급한 바는 전혀 없다. 형량을 낮추기 위하여 재판위원에 참여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재판 전후의 사정에 견주어 해석할 수밖에 없다. 국제공산당 원동비서부와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이 홍범도를 재판위원으로 선택한 것은 그가 자유시참변 당시 중립적 위치를 취한 점을 고려하여 공정한 재판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홍범도는 독립군 지도자들 가운데 봉오동전투와 청산리 전투 모두에 참전한 유일한 인물이었다고 슈미야츠키 등은 이러한 홍범도의 상징성을 이용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재판과 관련하여 홍범도가 이 재판의 재판장이었다고 쓴 기록들이 있다. 원동민족혁명단체대표회에 참여하게 될 조선대표단의 일원으로 이르쿠츠크에 머물고 있던 여운형은 “흑하사변이후 연해주와 북만 일대에서 있는 조선의 무장단을 모조리 이르쿠츠크에 불러들여 1개 사단을 조직해 놓은 ‘고려혁

명군단에서 열린 이 군법회의에 재판장은 저 유명한 의병대장 홍범도. 우리들 조선대표단의 일단은 배심원의 자격으로 배석했었던 것이다.”고 썼다.(여운형, 『나의 회상록: 여행편』『중앙』 1936년 7월호, 112쪽).

앞에 인용한바 최계립은 소설 『홍범도』를 쓴 김세일에게 보낸 편지(1957년 11월 10일 자)에서 “홍범도 장군이 재판장으로 1921년 동상에 일꾸쓰크에 와서 일꾸쓰크 감옥에 있던 동지들을 석방한 것으로 쓰십시오”라고 권했다.

‘참군인’ 홍범도에 관한 회상

이르쿠츠크에서 고려혁명군 부속 사관학교 제1중대의 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이지택은 자신의 회상기 『고려혁명군』에서 홍범도를 만났던 일화를 남겼다. 이지택은 사할린군대 소속으로 박일리아족 군인들에게 피살된 박병길(와실리)의 가까운 동지로 자유시참변 당시 아무르주의 주도(州都)인 블라고베시첸스크에 체류했고 고려혁명군과 더불어 이르쿠츠크로 이동하였고 이르쿠츠크파에 가까웠던 인물이다.

“당시에는 홍범도장군도 ‘일꾸츠크’까지 오셨는데 그이를 따라온 안무, 이봉해 등의 소개로 홍장군을 뵈게 되었는데 우리는 간도 중학교에서 배운 역사책에도 그의 이름이 의병대장 서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숭배하던 처지인지라 60이 넘는 노장군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이따금씩 곰탕과 위까[보드카] 파티를 열고 했는데 농촌 할아버지상이어서 도무지 뵈내고 거들거리는 법이 없어서 우리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군고위간부측에서도 그 분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하여준다는 말을 들었으나 어떤 정도인지는 몰랐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들이 대접하는 곰탕이 그의 비위에 맞았으리라고 믿는다. 옛날 화승총을 가지고 범잡이 하던 이야기와 한일합병 후에는 의병을 일으켜 왜병과 싸우던 이야길 시작하면 밤이 깊어지는 줄 모르고 젊은이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던 그 모습이 완연히 떠오른다.

그이는 서당이나 학교도 모르기 때문에 사회의 출세라든가 명예라는 것을 초개같이 여겼고 어쩌면 독립군을 한 부대 거느리고 본국에서 독립전쟁을 한번 멋지게 했으면 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 아니었던가고 믿는다. 그렇게 하는데는 아무래도 간도에서 들어온 부대라야 하는데, 빨리 교육이 끝나는 대로 좋은 무기를 가지고 만주 방면으로 떠나야 하는데 얼마우재(제2세)들은 자기처럼 서두르지 않은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는 것이었다.”(이지택, 『고려혁명군』 『월간중앙』 58호(1973년 1월호), 302쪽)

이지택은 출세나 명예를 중시하지 않았던 참군인으로서의 홍범도를 제대로 묘사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공산당 원동비서부의 지도하에서 원동으로의 이동과 독립전쟁 개시를 미루며 느긋한 입장을 취하고 있던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 간부들에 대한 못마땅한 심정이 드러나 있다.

홍범도를 비롯한 간도독립군 지도자들이 자유시참변 전후 사정과 그 진상을 파악하게 되는 것은 국제공산당 감사위

원회의 ‘조선문제에 관한 11월 결정서’에 따라 고려공산당 연합간부로 선임된 이동휘와 홍도가 12월 초 이르쿠츠크에 도착한 이후의 일이다. 이때에 이르러야 비로소 홍범도 등 간도 독립군 지도자들은 자유시참변이 중앙의 승인없이 슈미야츠키와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이 독단적으로 일으킨 사건임을 알게 된다.(계속)



▲ 네스토르 칼란다리쉬빌리, 자유시참변 당시 고려혁명군정의회 의장겸 총사령관으로 무장진압 책임자의 한 사람



▲ 보리스 슈미야츠키, 국제공산당 원동비서부장. 한인군대에 관한 전권을 행사한 자유시참변의 핵심 책임자



▲ 오하목, 고려혁명군정의회 부의장겸 부사령관으로 자유대대를 지휘한 자유시참변 책임자의 한 사람

대한 고려인의 현황과 이슈



정영순 (흥분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대한고려인협회 회장)

1. 대한민국 동포정책의 변화

“차별을 바로잡은 정부의 결단을 깊이 환영하며 동포정책의 더 큰 정의를 기대한다”

2026년 2월 12일, 대한민국의 동포정책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이 폐지되고,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일원화되는 조치가 시행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체류자격의 정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오랜기간 지속되어 온 구조적 차별을 해소하는 역사적 결정이다. 그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재외동포’로 불리면서도, 실제 법적 지위에서는 출신국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받아 왔다. 러시아,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 국적의 동포들은 한국계 혈통을 입증하면 F-4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던 반면, 중국 국적 동포와 일부 CIS 국가출신 동포들은 동일한 혈통을 가졌음에도 추가로 ‘대학졸업’이라는 학력요건을 충족해야만 F-4 자격을 받을 수 있었다. 즉, 동일한 민족적 정체성을 공유하면서도, 출신국과 학력에 따라 체류자격이 달라지는 구조가 존재했던 것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동포 내부를 다시 구분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했다. H-2 체류자격은 이러한 차이를 제도적으로 고착화했다. 체류기간의 제한, 취업범위의 제약, 장기적 정착의 불확실성은 많은 동포들에게 ‘임시적 존재’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이는 역사적 이유로 고국을 떠나야 했던 동포 후손들에게 또 다른 심리적 거리감을 형성해왔다. 이번 H-2

폐지와 F-4 통합은 이러한 차별적 요소를 제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단지 비자통합이 아니라, 동포정책의 기준을 다시 ‘민족적 동질성’과 ‘평등’의 원칙위에 세우는 조치이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고려인 공동체의 자치대표기구인 대한고려인협회는 그동안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협회는 동포 당사자의 경험을 토대로, 학력요건이 특정집단에만 적용되는 구조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정책포럼, 간담회, 공론의 장에서 일관되게 설명해왔다. 한국시민사회단체인 사단법인너머와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제도적 의제로 발전시키는 과정도 이어졌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지속적 문제제기는 결국 제도개편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번 조치의 의미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고려인을 비롯한 해외동포의 역사는 식민지 시기, 독립운동, 강제이주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연해주와 중앙아시아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그 후손들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이다. 흥분도장군을 비롯한 수많은 인물들의 삶은 이를 증명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동일한 민족적 정체성과 역사적 연속성을 인정한다면, 체류자격의 평등을 넘어서 ‘국적회복’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국적은 단순한 행정적 신분이 아니라, 역사적 공동체에 대한 법적귀속을 의미한다. 해외동포가 자신의 역사적 뿌리를 지닌 국가와 법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단순한 정책완화가 아니

라 역사적 정의의 문제이다. 특히 흥분도장군기념사업회와 같은 역사기념단체가 독립운동의 기억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금 그 역사 속 주체였던 동포 후손들의 법적 지위 역시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기억의 복원과 권리의 복원은 분리될 수 없다. 보존부의 지원으로 올해 시작한 대한고려인협회와 흥분도장군기념사업회의 “고려인 디아스포라 역사기록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사업”은 고려인 동포 역사를 인류공동의 기억으로 인정받으려는 시도이다. 만약 국제사회가 이 역사를 인류사적 가치로 인정한다면, 국내제도 역시 그 역사적 의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흥분도장군기념사업회는 과거를 기리는데에 머무르지 않는다. 독립운동의 정신을 오늘의 제도와 사회속에서 실현하려는 시민적 실천의 주체로서 역할을 확장해왔다. 다큐멘터리 ‘독립군: 끝나지않은전쟁’이라는 제목이 보여주듯 독립을 향한 투쟁은 어떤 시점에서 끝난 사건이 아니다. 정의가 제도속에서 완성될 때까지 이어지는 역사적 과제이다. 고려인 사회도 이 제목을 단순한 영화의 이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직 끝나지 않은 ‘권리회복의 과제’로 받아들인다. 국적회복 논의는 이러한 공동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는 독립운동의 기억을 계승하는 차원을 넘어 역사적 정의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연속된 노력이다. 흥분도기념사업회와 대한고려인협회의 협력은 바로 이 지점에서 만난다. 기억을 지키는 일과 권리를 회복하는 일은 분리된 과제가 아니다. 역사적 책무를 이루는 두 개의 축이다.

H-2와F-4의 통합은 하나의 단계가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시에 다음 단계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다. 체류자격의 평등이 실현되었다면 이제는 역사적 단절을 법적으로 치유하는 문제 즉, 국적회복의 제도적 길을 여는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때이다. 역사는 기억으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제도속에서 구현될 때 비로소 정의가 된다.

2. 고려인의 역사 기억과 살아 있는 책임

“다큐멘터리 상영과 기억 실천을 통해 본 고려인의 정체성”
고려인에게 역사 기억은 과거를 회고하는 상징적 행위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공동체가 현재 속에서 실천하는 책임의 한 형태이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재구성해 가는 과정이다. 2025년 대한고려인협회의 활동은 고려인이 독립운동의 기억을 어떻게 오늘의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흥분도 장군을 다룬 다큐멘터리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의 무료 상영 프로젝트이다. 2025년 8월부터 9월까지 대한고려인협회는 러시아어 번역본 제작과 상영을 지원하여, 고려인이 밀집해 거주하는 한국 내 15개 도시에서 총 20회의 무료 상영을 진행하였다. 이 기간 동안 2,500명 이상의 관객이 영화를 관람했으며, 많은 고려인들에게 이는 흥분도 장군의 삶과 독립운동의 의미를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처음 온전히 접하는 경험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문화행사에 그치지 않았다. 협회는 영화의 한러 번역에 직접 참여했고, 온라인 신청 접수, 극장 대관, 상영 일정 조율, 현장 안내와 흥분까지 전 과정을 책임졌다. 이 과정에서 역사 기억은 하나의 콘텐츠가 아니라, 시간과 노동, 조직과 연대가 필요한 공동의 실천으로 구현되었다. 특히 이 다큐멘터리 상영이 갖는 의미는, 흥분도 장군의 업적과 더불어 고려인이 한국 독립운동에서 차지했던 역할이 오늘날 젊은 세대의 고려인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했다는 점에 있다. 소비에트 시기와 그 이후의 역사적 조건 속에서 성장한 많은 고려인 차세대에게 독립운동의 역사는 교과서나 공적 기억의 영역 밖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으로 이주한 고려인들에게 이러한 역사적 공백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외형적으로는 한국인과 다르지 않지만, 언어와 성장 환경의 차이로 인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 놓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흥분도 장군과 고려인 독립운동의 역사는 고려인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역사적 근거가 된다. 다큐멘터리 상영은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고려인 관객들은 영화를 통해 자신의 선조들이 단순한 이주민이나 피해자가 아니라, 한국 근현대사의 결정적인 순간에 능동적으로 참여했던 주체였음을 시각적이고 서사적인 방식으로 확인하게 되었다. 이는 곧 한국 사회 안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다시 사유하고, 선조들의 선택과 헌신이 오늘의 자신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KT 노조(김인관 위원장)의 지원을 통해 가능했다. 대한고려인협회는 KT 노조 위원장의 적극적인 협조와 연대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이는 기업과 시민사회가 함께 고려인의 역사와 독립운동의 의미를 공적 영역으로 확장시킨 사례로, 고려인의 기억이 더 이상 특정 집단의 내부적 서사에 머물지 않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협력이었다. 이 활동의 범위는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러시아어판 다큐멘터리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으로도 전달되었고, 현지의 고려인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무료 상영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흥분도 장군과 독립운동의 기억은 국경을 넘어 고려인 디아스포라 전체를 잇는 공동의 역사 자산으로 확장되었다.

이와 함께 대한고려인협회는 고려인지원단체 너머와 협력하여 고려인 기억의 달력을 발간하였다. 이 달력은 매달 한 명의 고려인 독립운동가 또는 역사적 인물을 조명하며, 고려인의 복합적이고도 장구한 역사를 일상의 시간 속으로 끌어들인다. 이 캠페인은 한국뿐 아니라 CIS 지역의 고려인 언론과 시민단

체들의 참여와 지지를 받으며, 기억의 내용을 넓은 디아스포라 공간 속에서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달력이 일회성 기획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2026년에도 기억의 달력은 계속 발간되는 것이며, 이는 고려인 사회가 역사 기억을 기념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사회적 책무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일련의 실천을 통해 고려인은 더 이상 역사적 상처의 수동적 계승자가 아니라, 기억을 스스로 조직하고 사회와 공유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려인의 역사 기억은 과거를 향한 시선이 아니라, 오늘의 한국 사회와 대화하기 위한 언어이며, 독립운동의 정신을 현재 속에서 이어가는 방식이다. 이것이 바로 고려인이 말하는 살아 있는 책임이며, 흥분도 장군이 상징하는 역사적 투쟁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이유이다.

3. 고려인 교육과 청년: 세대 간의 계승

“역사 체험에서 교육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성장의 구조”

고려인 사회에서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세대 간 기억과 경험을 이어주는 핵심적인 매개체이다. 특히 한국으로 이주한 고려인 가족들에게 교육은 자신의 뿌리를 이해하고, 선조들의 삶과 선택을 오늘의 현실 속에서 다시 해석하는 과정과 직결된다. 2025년 대한고려인협회의 활동은 이러한 교육의 의미를 역사 체험, 청년 참여, 그리고 아동의 학습 지원이라는 여러 층위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대전에서 10월에 진행된 고려인 가족 대상 역사 캠프이다. 이 캠프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고려인의 역사를 배우고 공유하는 교육의 장으로 기획되었다. 참가자들은 고려인이 한국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역사와, 이후 이어진 강제이주와 디아스포라 형성 과정을 주제로 한 강의와 해설을 통해 조상들의 삶을 한국 근현대사의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캠프 일정에는 흥분도 장군 묘역 참배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었다. 이는 역사적 사실을 지식으로만 접하는 것을 넘어, 고려인 독립운동의 상징적 인물을 직접 마주하며 기억을 체험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고려인 청소년과 가족들은 독립운동이 「교과서 속 역사」가 아니라, 자신들의 가족사와 직접 연결된 현실의 역사임을 체감하게 되었다. 이 캠프는 흥분도장군기념사업회 대전모임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 속에서 진행되었다. 대한고려인협회는 이 자리를 빌려, 지역 차원에서 고려인 역사 교육의 장을 함께 만들어 준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 이 사례는

흥분도장군기념사업회와 고려인 단체 간의 협력이 실질적인 교육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2025년의 또 다른 특징은 역사 교육이 학습에 머무르지 않고 문화적 실천으로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같은 해, 고려인 예술·문화 단체들은 대전에서 매년 열린 부리축제에 참여하여 공연과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는 고려인 청년과 예술가들이 자신의 뿌리를 기억하는 데서 나아가, 그 기억을 지역 사회와 공유하는 주체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고려인의 역사는 이 과정에서 닫힌 공동체 내부의 서사가 아니라, 지역 사회와 함께 나누는 공적 이야기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한편, 대한고려인협회는 청소년과 청년뿐 아니라 초등 연령대의 고려인 아동들이 겪는 교육 현실에도 주목해 왔다. 많은 고려인 아동들은 낮은 한국어 능력으로 인해 수업 이해, 과제 수행, 교사와의 소통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학습 부진과 학교 적응 문제로 직결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추진된 것이 랜선한글학교 프로젝트이다. 이 사업은 한국 학교 교육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고려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학습 중심의 한국어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프로젝트는 KT 노조 (후원사), 교육 플랫폼 눈높이, 대한고려인협회, 그리고 흥분도 장군기념사업회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협약 구조속에서 진행되었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총 55명의 고려인 아동에게 학습용 태블릿이 제공되었으며, 이를 통해 가정 환경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학습 참여가 가능해졌다.

많은 고려인 가정이 저소득층에 속해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대한고려인협회의 기본 입장은 단순한 물질적 지원이나 일회성 복지에 있지 않다. 협회는 고려인 사회에 필요한 것은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니라 성장과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라는



관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였다. 언어 능력과 학습 역량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아동 개인의 교육 성취와 장기적인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고려인 아동에 대한 학습 지원은 고려인의 사회적 지위 개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장기 투자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2025년 대한고려인협회의 교육 및 청년 사업은 하나의 일관된 구조를 이룬다. 역사 캠프를 통해 과거를 이해하고, 문화 축제를 통해 현재 속에서 그 기억을 표현하며, 아동 교육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세대로 그 성과를 이어가는 방식이다. 교육은 이 과정에서 단절된 기억을 잇고, 세대 간 계승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고려인 청년과 아이들은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나 수혜자가 아니라, 역사와 사회를 이어가는 주체로 성장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고려인 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이며, 세대 간 계승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다.

4.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고려인에 대한 인식과 평가

“기억의 인정에서 권리의 문제로”

오랜 시간 동안 고려인은 한국 사회에서 주로 이주민 정책이나 사회적 지원의 대상이라는 틀 속에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은 고려인이 한국 독립운동에 기여한 역사적 사실과, 식

민지와 냉전, 강제이주라는 역사적 조건 속에서 형성된 디아스포라의 특수한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2025년은 이러한 인식이 점진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그 상징적인 사례가 노근리평화재단의 상 수여이다. 노근리평화재단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과 인권, 기억과 책임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해 온 대표적인 기관이다. 이 재단이 고려인 사회와 관련된 활동을 공식적으로 평가했다는 사실은, 고려인의 역사와 경험이 더 이상 주변부의 서사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함께 성찰해야 할 기억의 일부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 차원의 인정으로도 이어졌다. 대한고려인협회 초대 회장 노성달은 (No Alexandr) 2025년 대한민국 국무총리로부터 정부 포상을 수훈하였다. 이는 개인의 공로를 넘어, 고려인 공동체가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사회적 기여와 공공적 활동이 제도적 언어로 공식 인정받았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고려인이 더 이상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시민적 가치 형성에 참여한 주체임을 확인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주목할 점은 고려인 역사와 기억을 국제적 맥락에서 재조명하려는 움직임이다. 현재 추진 중인 유네스코 기록유산 프로젝트는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기록과 증언을 세계사적 차원의 기억 자산으로 위치시키려는 시도이다. 이는 고려인의 경험을 특정 집단의 과거사가 아닌, 보편적 가치인 기억,

정의, 인권의 문제로 확장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것이 바로 고려인 국적 회복 권리 문제이다. 역사적 기억에 대한 공식 인정은 필연적으로 그 기억을 만들어 온 주체들의 법적·정치적 지위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고려인의 시민권 문제는 새로운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근현대사의 형성 과정에 참여했던 이들과 그 후손들이 역사적 사정으로 인해 배제되었던 시민적 지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가깝다. 이 점에서 시민권 회복 논의는 복지나 특혜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과 권리를 연결하는 역사적 정의의 문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독립운동의 기억을 기념하는 것과, 그 후손들이 제도적으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2025년에 나타난 일련의 변화들은 고려인에 대한 인식이 단순한 상징적 인정의 단계를 넘어, 권리와 제도,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함께 논의하는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과정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기억을 통해 역사를 재구성하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권리의 문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고려인 사회와 한국 사회의 관계가 보다 성숙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한다. 고려인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는 이제 분절된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역사적 연속성과 책임 속에서 함께 사유되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고려인 독립운동가 소개 (1) 한창걸, 김미하일, 김규면

출처 :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정리 : 반 병 룰 (홍범도아카데미 원장/한국외대 사학과 명예교수)

1. 한창걸(韓昌傑, Хан Григорий Елисеевич, 1892 ~ 1938)



1892년 5월 20일, 러시아 연해주 하(下)연추 마을(현재의 추카노브카 마을)에서 원호인(입적한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러시아 소학교와 중학교에서 공부하였다. 이후 수청(Партизанск) 지역 한인마

을 신영동(新英洞, 신영거우, 현재의 니콜라예프스카 마을)로 이주, 1908년 이후 수청지역에서 미주에 본부를 둔 공립협회와 대한인국민회의 지부, 권업회 수청 큰영 지부의 간부로 활약하며 교육계몽운동을 전개하고, 제1차세계대전 당시 참전하여 서남부전선에서 독일군과 싸웠고 군대 내에서 혁명사업을 전개하였다. 러시아 10월 혁명 이후인 1918년 4월 신영동에 최초의 노농군소비에트를 조직하였다. 1919년 2월 최초의 한인 의병대(빨치산부대)를 조직하여 반백위파 항일무장투쟁을 이끌었다. 1919년 11월 17~18일 체코군 사령관 가이다(Rudolf Gaida)가 주도한 반(反) 백위파 로자노프 봉기에 열차 기관총 소대장으로 참여하였으나 백위파군에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다. 1920년 1월 30일 러시아혁명군의 블라디보스토크(Владивосток) 입성 직전에 석방된 후 러시아공산당에 가입하고 러

시아혁명군정의회 의장 세르게이 라조와 협의하고 1920년 제1원동소비에트연대 제1대대장으로 임명되어 3백여 명의 한인 부대를 지휘하였고 이후 한인의용대들을 통합한 제1, 제2 수청의병대의 핵심간부로서 반혁명 백위파군과 수차례의 전투를 지휘하였다. 고려의병대들의 통합군대인 고려혁명군을 지도할 고려혁명군정의회에 고려인의병대 대표로 의원에 선출되었고, 고려혁명군 제2본대를 이끌고 원동해방전쟁의 최후 전투인 1922년 10월 이바놉카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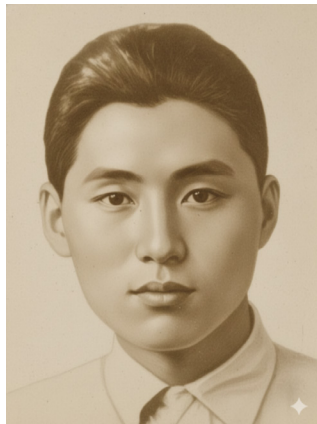
시베리아 내전 종결 이후 의용대 대원들과 함께 침허우(Шкотово)지역에 정착하여 '크라스나야 즈베즈다(붉은별)'라는 아르젤리(Artel)를 조직하고 대원들의 생계 보호에 힘썼고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내부인민위원회(NKVD)에서 간부로 근무하였다. 1932년 10월혁명 15주년에 소련 정부로부터 한인빨치산운동과 내부인민위원회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훈장을 수여받았으나, 1937년 9월 3일, '일본 첩보요원'이라는 혐의로 체포되어 1938년 2월 9일 총살되었다. 부인



▲ 한창걸과 박경철이 지휘했던 수청의병대

조순진 역시 체포되었고, 부모를 잃은 딸 나제즈다 역시 행방 불명되었다. 1958년 7월 7일 원동변강 군관구 군법회의의 판결로 복권되었다. 2007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2. 김미하일(김인. Ким Михаил Михайлович, 1896 ~ 1938), 건국훈장 애국장



1896년 12월 20일, 러시아 최초의 한인마을인 연해주의 지신허(地新墟) 마을(현재 폐촌상태로 비노그라드나야 지역에 위치)에서 태어났다. 지신허에서 4년제 소학교를 졸업하고, 아지미 마을의 2년제 전문학교,

라즈돌리노예(Раздольное)의 사범학교를 마친 후 고향인 지신허와 시넬리코보 마을에서 교사로 한인 아동을 가르쳤다. 1915년 이르쿠츠크(Иркутск)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되어 제1차세계대전 당시 독일군과 싸웠고 제국주의반대 선전활동을 하였다. 사회주의 혁명 정당인 일세당(1919년 7월), 한인사회당(1920년 3월)의 핵심 간부로 활약하였다. 러시아혁명정부 관계자들과 각국 공사들, 언론사 대표들을 초청하여 대대적으로 진행한 1920년 3.1운동 1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응접부장으로 활동하였다. 1920년 4월 연해주 4월참변 이후 한인 유격부대를 지휘하며 반혁명백위군과 싸웠다. 시베리아 내전 종결 이후 소비에트(1922~1931) 대표로 활동하였고 특히 1931년에 개최된 제4차 원동변강 소비에트대회 대표로 참석하였다. 1924년 6월 고려공산당 창립대표회 준비위원회(오르그부로)를 대표하여 코민테른 제5차 대회에 참석하였다. 1925년 원동국립종합대학(DVГУ) 중국과 야간부에 입학하여 수학하며 대학 내의 조선어과를 지도하고, 블라디보스토크(Владивосток)에서 검찰관으로 근무하였다.(1926~1930)

1930년 원동국립대학 졸업 후 원동변강 당위원회 조선문

제 담당 전권대표로 활동했다. 소비에트 대표로 1931년 모스크바(Москва)의 붉은고수대학에 파견되어 수학하고 돌아와 니콜스크-우수리스크(Никольск-Уссурийск) 구역의 손일선(손앗선) 습호즈(국영농장) 정치부장으로 임명되어 활약했다. 1934년 1월 26일부터 2월 10일까지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17차 당대회에 원동변강대표 29명으로 선출되어 김아파나시 아르센예프와 함께 참석하였다. 1935년 1월 31일에 사망한 민족혁명운동의 거목 이동휘의 장례식을 김아파나시, 장도정, 이문헌 등과 함께 장례식을 지휘했다. 이 일은 1937년 4월 29일 소련 내무인민위원회(NKVD)에 의해 '반혁명 반소비에트' '일본첩보요원' 혐의로 체포·출당·처형되는 근거의 하나가 되었다. 1938년 5월 25일 소련형법 58조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당일 총살되었다. 1957년 4월 9일 소련최고재판소 군사법원의 판결로 복권되었다. 2010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다.



▲ 소련공산당 제17차 당대회에 참석한 김미하일. 오른쪽 뒤의 스탈린, 왼쪽의 몰로토프(1934년)

3. 김규면(Ким Гю-мён, Кми Бяк-чу. 1881 ~ 1969)



1881년 3월 12일 함경북도 경흥군(慶興郡) 상하면(上下面) 태양동(太陽洞, 두루봉촌)에서 출생하였다. 호는 백추(白秋)이다. 서울의 한성사범학교와 무관학교 속성과를 졸업했다. 1907년 신민회

에 가입하여 신교육운동에 참여하는 한편, '대한기독교회'에 입교하여 교사와 목사로 활동했다. 1914년 대한기독교회 교단이 말콤 펜윅(Malcom C. Fenwick)의 후계자를 둘러싸고 분열되자, 서양 선교사들의 교리와 교회 운영 방식, 특히 조선총독부에 대한 타협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국외(외국인선교사)로부터의 독립"이란 기치를 내세우며 스스로 성리교(聖理敎)라는 '독립교회'를 창설하였다. 성리교는 주로 북한·만주·연해주 지역의 기독교도들을 규합하여 300여 교회와 신도수 3만 명에 달할 정도로 교세를 확대하였다.

3.1운동 직전 한·중·러 국경지대인 훈춘(琿春)에서 자신의 독립교회 핵심 교도 2, 3백명을 주축으로 군사행동을 주요 활동 목표로 하고, 신민회를 계승한다는 취지의 대중적인 비밀군사조직 대한신민단을 창설하였다. 블라디보스토크(Владивосток)에서 이동휘와 비밀 회동을 가진 후, 1919년 4월에 개최된 한인사회당 대회에서 신민단을 한인사회당과 통합하고 한인사회당 부의장 겸 군사부 위원장에 선임되었다. 3.1운동 이후 간도와 러시아 연해주, 흑룡주의 항일무장투쟁을 지도하였고, 신민단의 일부 군대는 1920년 6월의 봉오동전투에 참전하였다. 청산리전투를 전후하여 연해주로 이동한 박경철, 신우여, 한경세, 고상준 등 신민단 간부와 군인들은 솔발관, 수청 등 지역의 항일무장활동과 한인동포 조직 활동에서 크게 활약하였다.

신민단 자금 500원을 한인사회당 코민테른 파견 대표단(박진순·박애·이한영) 파견 비용으로 제공하였고, 1920년 7~8월 모스크바(Москва)에서 개최된 국제공산당 제2차 대회에

참여하여 대회가 채택한 선언서에 한인사회당 대표 박진순과 함께 한인 빨치산 대표로서 서명하였다. 1921년 5월 20~23일 상해에서 개최된 제3회 한인사회당 대표회에서 창립된 고려공산당(상해파)의 부위원장으로서 선출되었다. 1921년 3월 러시아 아무르주 마사노프(Мазаново)에서 개최된 '전한의병대회'에서 결성된 대한의용군 전한군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자유시참변을 일으키게 될 고려공산당(이르쿠츠크파)에 맞서 싸웠고, 8월 말 이만(Иман)에서 조직된 고려의용군사의회(군사위원회)의 고문으로 선임되었다.

시베리아 내전 종결 후 중국 관내 지역으로 활동무대를 옮겨 국민대표회의(1923년 1월~6월)에 참석하는 한편, 중국의 파공(총파업)운동과 청년동맹회 활동(1924년~1925년)을 전개했다. 이때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임시의정원 의원과 이동녕 내각의 교통총장 대리(1924년)로 활동했다. 중국혁명과의 연대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1926년 국민당군의 북벌(北伐) 당시에는 한인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1927년 장개석의 반공(反共) 쿠데타로 많은 동지들이 희생되고 국민혁명이 좌절되자 러시아 연해주로 귀환하였다. 이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서적 판매원, '빨치산위원회'의 빨치산 참여 증명서 발급 업무 등에 종사하다가 1934년 모스크바로 이주하였다. 말년에 『이동휘(李東輝) 성재(誠齋) 약전(略傳)에 관한 회상기』, 『노병 김규면의 비망록에서』, 『이만전쟁』 등 직접 관련한 항일 혁명 운동에 대한 귀중한 기록을 남겼다. 2002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받았다.



▲ 김규면 김병하(1월 좌로부터) 김원, 최계립(2월 좌로부터)

행사 참관기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역사탐방을 다녀와서



오현석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전 한국주택금융공사 본부장)

찬란한 4월의 봄 햇살에 몸을 맡기고 버스에 올라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대표적인 반봉건, 반외세 농민혁명의 심장이었던 전북 정읍을 향하여 역사탐방을 시작해 본다. 교과서를 통해서 불리운 이름조차도 다양한 '동학란', '동학민란', '동학농민운동', '갑오농민전쟁' 등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름만큼이나 굴곡진 우리 시대의 숨결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듯하다. 수많은 논란과 토론 이후 2004년에서야 비로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동학농민혁명이 국가가 공인한 명칭이 되었지만 이 역사적 사건이 갖고 있는 그 희생과 영향력, 그리고 의미에 비하면 아직 부족함이 많다는 생각이 앞선다.

약 4시간을 달려 우리는 정읍 시내에 위치한 '이화담'이라는 정읍 대표 맛집에 도착했다. 마중 나와 주신 시청 관계자분들과 함께 담소를 하며 점심식사를 하고 인근 쌍화탕 거리를 가볍게 배회한 후 오늘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할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으로 향하였다. 잠시 후 도착한 기념공원은 1894년 5월 동학농민군이 전라감영군에 승리를 거둔 황토현의 드넓은 들판 위에 세운 것으로 기념관, 박물관, 연수동, 교육관 등 건물

동과 각종 조형물, 광장, 연못과 캠핑장 등이 위치해 있었고 멀리 보이는 소나무 숲과 산들이 잘 어우러져 있었다.

숙소동에 각자 숙소배정을 마친 후 기념관에 모여 최은희 해설사님으로부터 전체적인 기념공원 소개와 함께 1894년 1월 전봉준의 연설을 듣고 봉기를 결의한 고부 농민군 집결장소인 말목장터에 있던 감나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180년된 감나무가 2003년 고사하자 이곳 기념관으로 옮겨 영구 전시를 하고 현재 원래 자리에는 대체 식수를 하고 그 나무에 열린 감은 따지 않고 있다고 한다. 세월을 이기는 장사는 없는 모양이다. 이어 각종 유물과 자료, 기념물 등을 소장한 박물관과 전시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등록된 분들의 위패를 모신 추모관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야외에 나와 농민들이 억압과 착취를 떨쳐버리고 죽창을 들고 일어나 혁명가로 변모해 가는 상징조형물 '죽창결의', 동학농민군의 결연한 의지를 돌망태 조형예술로 승화한 '농민의 박', 1894년 봉기한 전국 90개 지역 농민들이 죽창을 높이 들어 결의했던 순간을 연상시키는 '울림의 기둥'을 차례로 감상하고



동학농민혁명의 길을 따라 기억의 들판을 지나 황토현 전적지로 향하였다.

황토현 전적지에는 전봉준 장군과 농민군의 동상과 위패를 모신 구민사 그리고 제민당과 기념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압권은 사람사자 모양의 동상 및 조형물이다. 전봉준 장군을 뒤따르는 수많은 농민군과 아낙네, 아이들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표정과 몸짓에서 한편으로는 결연한 결기가, 한편으로는 축제마당 같은 열기가 후끈 느껴진다. 조형물 뒤편에 있는 1963년 10월 박정희 국가재건회의 의장이 세운 동학혁명 기념탑을 보면서 5.16 군사정변을 동학농민혁명에 빚대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자기합리화를 하려는 꿈수는 아니었는지 한번 되물어 본다. 나오는 길에 1980년대 전두환 대통령이 세운 황토현전적지 정화 기념비가 있는데 술한 낙서와 오물세례 등으로 수난을 당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서 역사의 심판만큼 무섭고 냉혹한 처벌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어 차량으로 만석보침터로

이동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이된 조병갑의 폭정과 만석보의 흔적을 살펴보고 숙소 인근에 있는 '파랑새가든'에서 맛있는 저녁과 음주, 숙소에서의 화끈한 뒷풀이로 긴 하루를 마무리 하였다.

다음날 이른 아침을 먹고 김제에 있는 원평집강소로 이동하여 문병학 선생님의 열열한 해설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당시 백정출신의 부자인 동록개가 이지역 대접주인 김덕명에게 찾아와 '신분 차별이 없는 평등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이 집을 동학농민군에게 한납하여 이후 폐정개혁활동의 전초기지로 활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어 전주에 있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로 향하였는데 일정상 전주 완산도서관에 있는 파랑새관과 녹두관은 탐방을 생략하고 바로 전라감영을 거쳐 고통 한옥마을로 길을 잡았다. 고풍스런 자태를 마음껏 뽐내던 그날 전주의 풍경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인근 '녹두꽃'이라는 한정식집에서 기념사업회 전주지역 이사님들과 합류하여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울로 길을 잡았다. 올라오는 버스 안에서 이번 역사탐방의 의미들을 다시 생각해 본다

반봉건, 반외세를 내건 최초의 무장투쟁으로서의 동학농민혁명은 이후 항일의병운동과 독립군, 광복군으로 맥을 계속 이어갔다는 점에서 우리 항일무장독립운동사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억압받던 민중이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분연히 들고일어나 민중의 힘과 저항의 역사를 또 그 유전자를 고스란히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주고 있노라고.

행사 참관기

국군의 뿌리를 따라가다



염 동 인 (해군 잠수함사령부 홍범도함 전투체계관 소령)

국군의 뿌리는 어디인가? 이 질문에는 대한제국군, 독립군, 광복군 및 국방경비대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 이번엔 관람하게 된 “독립군: 끝나지않은 전쟁”은 이 질문에 대해 홍범도장군의 생애를 보여주며 답을 주고 있다. 영화를 바탕으로 홍범도장군을 통해 의병부터 광복군까지 오늘날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되짚어 보자.

구한말 머슴의 아들로 태어난 홍범도 장군은 포수들을 모아 1895년 을미의병에 가담하였으며, 1907년 정미의병 시 포수로 이뤄진 ‘산포대’라는 의병을 일으켰다. 이후 연해주로 넘어가 독립운동을 위해 세력을 키워, 1920년에 일제를 대상으로 봉오동전투, 청산리대첩 등 혁혁한 전과를 세웠다. 하지만 계속되는 일본군의 토벌전을 피해 소련 자유시로 탈출하였으나, 이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이주를 당하여, 생을 마감하셨다.

영화는 홍범도장군을 중심으로 한 독립군의 무장항쟁을 재조명하며, 구한말 의병에서부터 독립군, 그리고 광복군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짚어준다. 여기서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는 흔히 독립군이 일반 농민 등 민초들로 구성된 단순한 무장집단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독립군은 양반부터 산포수 등 다양한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직력과 전략, 명확한 군사목표를 갖춘 군대 그 자체였다는 점이다.

또한, 독립군들이 겪은 치열한 전투(봉오동전투, 청산리대첩 등)는 단순한 의병이 아닌, 독립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위해

훈련되고 조직된 군인이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 이후 독립군의 후예들이 광복군 및 대한민국 국군의 주춧돌이 되는 것을 보아,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는 독립군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영화를 보기 전 나는 스스로에 물었다. “우리 국군의 뿌리는 무엇인가?”

영화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오고 나는 이 질문에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우리의 국군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자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누구에 의해 지켜져 왔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 국군의 뿌리는 독립군이다. 나는 그 뿌리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바다를 지키고 있다.



행사 참관기

독립군의 유산, 오늘날 우리에게



이 동 환 (해군 잠수함사령부 홍범도함 중사)

나는 대한민국 해군 ‘홍범도함’의 승조원이다. 독립전쟁의 영웅인 홍범도 장군의 이름으로 명명된 홍범도함의 승조원으로서 영화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을 관람하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커진다.

다른 다큐멘터리 영화와 다르게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은 스크린 위에서만 흐르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 전 우리의 땅에서 울렸던 총성, 그 소리 속에 묻힌 이름 없는 이들의 숨결,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외침이었다.

적막이 흐르는 스크린 속에선 어두운 숲속, 눈보라를 헤치며 달리는 독립군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다. 총 한 자루, 겨우 몇 발의 탄환, 바람보다 얇은 옷가지. 그러나 그들을 움직이는 힘은 그것이 아니었다. ‘나라를 되찾겠다’는 단 한줄의 신념이 그들의 발을 멈추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 옆의 이웃, 친구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으나, 고통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빈자리에 신념과 희망을 채워 수많은 적들과 맞서 싸워갔다.

한 장면에서, 전우를 잃고 눈물로 흠을 적시던 병사가 하늘을 올려다본다. 그 눈빛 속에서 나는 전쟁의 참혹함보다 더 큰 것을 보았다.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씨, 그것의 곧 ‘희망’이었다. 영화는 그 불씨가 어떻게 세대를 넘어 지금 우리의 가슴 속에도 살아 있는지를 보여준다.

영화를 보는 내내 마음 한켠이 무거웠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평화가,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고 쟁취한 ‘미래’였다는 사실이 너무 선명하게 다가왔다.

마지막 장면이 끝나고 나에겐 독립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가 지키려던 것은 단지 땅이 아니라, 사람의 존엄이었다.’ 그 한마디가 내 마음에 오래 남았다. 그들의 전쟁은 끝났을지 몰라도, 우리가 그 뜻을 이어가지 않는다면, 그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영화관을 나서며 다짐했다. 절대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군생활을 하며 자부심을 갖고 그 정신을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이라고, 그리고 홍범도함 승조원으로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독립군의 정신을 이어받아 어두운 심해에서 묵묵히 대한민국의 해양수호를 위해 단단한 발걸음으로 나아갈 것이다.



▲ 홍범도함. 연합뉴스 사진

행사 참관기

홍범도 장군님의 마지막 시간이 깃든 크즐오르다를 다녀오다



남 우 기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정보통신기술사회 회장)

지난 11월 초, 찬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던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서의 여정이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 뜨거운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번 탐방을 떠나기 전, 바쁜 일상 탓에 역사 여행임에도 사전에 충분히 공부하지 못한 미안함이 컸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박 드미트리 선생님의 생생한 설명과 직접 마주한 역사의 현장들은 제게 그 어떤 역사 공부보다 깊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1937년, 영하의 황무지에서 시작된 사투를 내 눈으로 보다.

1937년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은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연해주에서 화물열차에 실려 온 17만여 명의 고려인들이 마주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크즐오르다의 척박한 황무지였습니다.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 토굴을 파서 견뎌야 했던 그 가혹한 운명 앞에서, 고려인들은 좌절 대신 삼을 들었습니다. 특히 길가에 우뚝 솟은 ‘벗집 탑’을 보았을 때의 몽클함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탑은 단순히 농사의 성과를 기리는 상징물이 아니었습니다. 맨손으로 수로를 파 시르다리아 강물을 끌어오고, 소금기 가득한 땅을 씻어내며 끝내 카자흐스탄 벼농사의 90%를 일궈 낸 고려인 선조들의 피와 땀, 그리고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카자흐 주민들과 함께 쓴 ‘공존의 역사’

이번 탐방 중 고려인 극장에서 관람한 연극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강제이주 직후, 굶주림과 추위로 죽어가는 고려인들에게 자신들의 빵을 나누어주며 손을 내밀었던 카자흐스탄 주민들의 모습.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고려인의 강인함뿐만 아니라, 이들의 따뜻한 환대와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연극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0.65%의 소수 민족이 어떻게 이 나라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지, 그 ‘공존의 힘’을 배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고려인들이 그 힘겨운 생존의 와중에도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연해주에서 옮겨온 원동사범대학을 모태로 하여 오늘날 카자흐스탄의 명문대학인 크즐오르다 국립대학의 기틀을 닦은 분들이 바로 고려인 지식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황무지에서 쌀을 일궈 배를 채우고, 동시에 대학을 세워 정신을 채웠던 그분들의 숭고한 교육열 앞에 고개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앞으로 한국과의 교류를 통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곁의 영웅, 홍범도 장군과 그의 거리

크즐오르다 시내에 당당히 자리 잡은 ‘홍범도 장군 거리’와 장군의 인자하면서도 강인한 홍상을 마주했을 때, 저는 말로 다 못 할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역만리 타국 땅에서 우리말과 우리 이름으로 불리는 거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

랐습니다. 장군님은 봉오동과 청산리의 영웅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곳 고려인들에게는 정신적 지주인 ‘바트르(Batyr)’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달라”는 민초들의 믿음에 묵묵히 응답하며 공동체의 울타리가 되어주신 장군님의 존재가 있었기에, 고려인들은 자존감을 잃지 않았고 지금은 포브스 50인 중 7명을 배출하는 당당한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카자흐스탄 역사 탐방을 돌아보며

이번 탐방을 통해 제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자부심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궈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감기 기운으로 몸은 무거웠지만, 척박한 땅을 옥토로 바꾼 선조들

의 생명력을 보며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은 결코 핑계가 될 수 없으며,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꺾이지 않는 마음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감동을 주변 분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여전히 고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느낀 이 뜨거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새로운 에너지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행 중 만난 모든 분들과의 소중한 인연에 감사드리며, 홍범도 장군님이 지켜낸 그 고결한 자존감을 우리도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의 자부심 넘치고 자랑스런 역사가 계속되길 바라며, 함께 해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사 참관기

홍범도함장 이취임식에 다녀와서



이요섭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주)쿠도해양기술 대표이사)

나는 30년을 넘게 바다와 관계된 일을 해왔고 지금도 이어가고 있지만, 군 복무는 육군으로 내륙 깊숙한 포천에서 했고 해군 부대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생소한 느낌으로 사무총장님과 함께 나선 여행길은 소소한 해프닝으로 시작되었다.

해군사령부 앞 맛집을 검색해 찾아가 '통영생선구이'는 폐업하여 없어졌고, 다시 검색해서 찾아가 동부회센터는 식사가 안되는 날이었다. 점심을 놓칠까 싶어 간판이 그럴듯한 '달빛에 구운 고등어'라는 식당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450도 오븐에서 구운 생선이 가장 맛있다는 설명과 달리 차라리 후라이팬에 구운게 더 맛있겠다는데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했다. 둘 다 입맛이 고급스럽진 않지만 취향은 비슷한 때문인가?

행사관계자와 만나기로 한 '해군의 집'으로 가는 로터리에 서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을 보면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 허리가 많이 젖혀져서 당당함보다는 가볍고 품위가 없다는 인상이 들었다. 그 순간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홍범도 장군 묘역에서 마주했던, 아래를 내려 보는 듯한 웅장한 장군님 홍상의 웅장한 슬픈 느낌과 교차되었다.

희생과 헌신의 역사를 부정하고 역사전쟁을 벌여 기어코 장군의 홍상을 철거하려던 무도한 자들, 결국 12.3 내란을 일으키고 국민에 총부리를 겨누기까지, 아찔한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고급장교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국민에 총부리를 겨누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하급군인들은 불법 부당한 명령을 소극적인 행동으로 회피했다. 많은 국민은 분노와 안쓰러움을 느꼈으리라. 국민적 두 영웅이 지켜온 이 나라 이 땅에 올바른 군인 정신과 국민의 군대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었다.

홍범도 함장의 이취임식은 진해 해군사령부 내 안무함 기념관에서 열렸다. 강당은 500여 개의 객석이 구축함의 선수처럼 당당하게 위를 향하고 있어 배에 타고 있는 듯했고, 연단이 중심이 되어 행군의 상징물인 닻을 연상케 했다.

객석에는 군악대와 홍범도함 승조원들이 자리하고, 연단에는 두 명의 홍범도 함장을 중심으로 가족과 각 함정의 함장들, 기념사업회 관계자 등 내외빈이 함께했다. 떠나는 이와 새로 오는 이에 대한 아쉬움과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행사는 절도 있고 품위 있게 진행되었다. 건너편 교육실에서 이어진 다과와 축하연까지 모든 일정은 조용하면서도 단정하게 마무리되었다.

제5·6대 홍범도함장 이·취임식



홍범도 함장의 임무를 마치고 떠나는 박종득 대령은 유쾌하고 친화력이 남달라 보였다. 행사 내내 웃음을 끌어내고 동료 함장들과 농담을 주고 받으며 분위기를 주도했다. 12.3 내란시 특전사령관 광종근과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를 만나 현역 지휘관들에게 헌법 준수 의지를 확인하고 정치적 중립을 요구함으로써 군의 추가적인 일탈을 막는 방어막 역할을 수행한 육군 4성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의 모습이 떠올랐다. 뒤를 잇는 박규탁 대령에게는 원칙적이고 강직한 군인 정신이 느껴졌다. 윤석열 정권의 서슬이 퍼렇던 시절 해병대수사단장 자격으로 조금의 흔들림도 망설임도 없이 '채해병 사망사건'의 진실을 수호했던 박정훈 대령의 모습이 떠올랐다.

떠나는 박종득 함장은 작전 전개를 위한 출항 시마다 홍범도함 승조원 모두의 무사 귀환과 이 나라 바다에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를 했다고 한다.

새로 부임한 박규탁 함장은 취임식에 참석한 어린 두 아들의 길잡이가 되는 아버지의 모습을 각인시키기에 충분했다. 두 함장은 겉모습은 달라 보이지만 '홍범도함'이라는 함명의 의미를 감당하는 해군의 모습을 보여주어 고마움과 등짐함을 느꼈다.

박종득 함장은 부부군인으로 부인은 계룡에 자녀는 전주 조부모 댁에 흠어져 살지만, 이제는 계룡에서 부부

는 같이 살게 되고 전주의 자녀와 가까워지게 되었다. 아버지를 따라 진해로 이사를 하느냐는 나의 물음에 박규탁 함장의 아들은 '이제는 계룡시에 자리를 잡아서 이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어른스럽게 답했다. 떠돌아다닌이 숙명인 군인으로 홍범도함의 전·후임 함장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버팀목이 되어준 가족 모두에게 고마운 마음이 우러났다.

꽤나 먼 길이었지만, 돌아오는 시간은 뿌듯함이 가득했다. 해가 지고 어둠은 짙어가지만 잔잔한 가슴 벅참이 있었다.

홍범도함을 지켜왔고 이끌어 갈 두 분께 이 바다를 맡기겠습니다!



독립전쟁 계승 축구 대회를 준비하며



정 우 기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 / 전 청강문화산업대 교수)

광복군 창설 85주년을 맞이하여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와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가 함께 독립전쟁의 역사와 정신을 기리는 축구 대회를 지난 봄부터 기획하여 2025. 6. 22(일) 서울시 노원구 경기기계공고 축구장에서 1차 준비 대회, 2025. 9. 28(일) 서울시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축구장에서 2차 준비 대회, 2025. 12. 7(일) 서울시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축구장에서 3차 준비 대회를 마쳤다.

지난 여름 뜨거운 날씨에 시작한 1차 준비 대회(2025. 6. 22)는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가칭 홍범도FC)와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가칭 신흥무관FC) 그리고 독립전쟁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 러시아 지역의 독립군 후손인 대한고려인협회가 참여하여 3팀으로 시작하였다. 다만 대한고려인협회가 1팀을 구성하기에는 선수가 부족하여 별도 팀을 구성하지 못하고 양팀에 일부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축구 대회가 개최된 서울시 노원구의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회원들로 구성된 사물놀이패의 응원과 간식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2대 이사장)의 시축과 열정적인 경기 진행으로 공식적인 1차 준비 대회를 뜻깊게 마무리하였다.

2차 준비 대회는 대회 시작 전에 독립전쟁 계승 축구 대회의 의미를 되새기는 마음으로 육군사관학교의 독립전쟁영웅 5인 흉상을 둘러보는 일정을 함께하였다. 이 행사는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민족문제



▲ 독립전쟁 계승 축구 1차 준비 대회 (서울시 노원구 경기기계공고)

연구소 등등 여러 단체에 참여하는 회원 및 가족들 90여명이 참여하였고, 박석봉 장군(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 전 육사 교수부장)의 안내로 기념관, 박물관도 함께 둘러보면서 국군의 정통성이 의병-독립군-광복군의 독립전쟁에서 이어져 오고 있음을 함께 확인하는 자리였다.



▲ 육군사관학교 독립영웅 5인 흉상



▲ 독립전쟁 계승 축구 리그 2차 준비 대회 (서울시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2차 준비 대회(2025. 9. 28)에는 홍범도FC와 신흥무관FC 외에 대한고려인협회에서도 실력있는 정예화된 팀으로 별도팀을 구성하여 참여하였다. 한편 대회 진행은 실력 평준화 및 화합의 의미를 높이기 위해 홍범도FC와 대한고려인협회 팀을 섞어 청산리FC와 봉오동FC로 명칭하고 신흥무관FC와 함께 3팀으로 나누어 리그전으로 진행하였다. 열띤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열의에서 나라의 독립을 갈구하는 독립전쟁의 정신이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경기가 끝나고 3개 단체가 함께 식사하면서 우의도 다지고 독립전쟁 계승 축구 리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하였다.

3차 준비 대회(2025. 12. 7)는 내년 “독립전쟁 계승 축구 대회”를 준비하는 마지막 대회였다. 대회 진행은 지난 2차 대회와 마찬가지로 화합의 차원에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대한고려인협회 선수들을 모두 섞어 3개팀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대회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2대 이사장)이 방문하여 독립전쟁 계승 축구 대회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원하며 함께 하였다. 경기는 화합의 차원에서 기념사업회의 장년층과 대한고려인협회 청년층이 어울려 팀을 구성하여 지난 1, 2차 대회보다 박진감 있게 진행되었으며, 지난 대회 다소 애매했던 판정 시비도 기념사업회 참여하는 전문 심판의 참여로 깔끔하게 경기가 진행되었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와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는 “독립전쟁 계승 축구 대회”를 우리나라 독립이 의병-독립

군-광복군의 지속적인 독립전쟁의 역사에서 이루어졌음을 이해하고 계승하려는 단체를 최소 6개로 늘려 2026년에 본격적인 대회를 준비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3차 준비 대회에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소속으로 참여한 경찰청 노동조합 김대령 위원장은 대회의 의미에 크게 공감하여 2026년에 “경찰청 노동조합 축구팀” 창단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여러 단체들이 아직 독자적인 정규팀을 구성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정식 대회를 출범하려는 당초 계획을 수정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참여 팀을 연합하여 준비 대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2026. 3. 15(일) 독립전쟁 계승 축구 준비 대회를 시작으로 독립전쟁의 뜻에 함께 하는 단체 및 개인이 참여하는 “독립전쟁 계승 축구 대회”가 빠르게 정착하여 선수와 회원 나아가 대회를 지켜보는 시민들이 독립전쟁을 치르던 독립군의 역사와 정신을 기리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 독립전쟁 계승 축구 3차 준비 대회(서울시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활쏘기는 어떻게 홍범도 홍상 철거 저항의 무기가 되었는가 - 에세이 『살짜쿵 활쏘기』를 출간하면서 -



김경준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편집위원/독립기념관 연구원)

어릴 적 사극을 보면서 주몽, 이순신, 이성계 등 한국사 속 영웅들을 동경했다. 내가 항일독립운동을 전공하는 역사학도가 된 것도 바로 그런 영웅들의 발자취를 연구하고 싶다는 꿈 때문이었다. 한편으로 우리의 전통활쏘기(국궁)를 배우고 싶다는 로망이 생겼다. 역사 속 영웅들 중에는 명궁(名弓)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활은 오랜 역사 속에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지켜낸 호국무기이기도 했다.

서른이 넘어서야 비로소 나는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다.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쏘기를 수련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서울 공향정(空香亭) 소속 공사로 활동하면서 틈틈이 활쏘기로 심신을 단련하고 있다. 그리고 2026년 1월 그동안 활쏘기를 수련하며 겪은 경험들을 정리한 에세이 『살짜쿵 활쏘기』(산지니 출판사)를 출간했다.

▲ 사진: 『살짜쿵 활쏘기』표지

국궁 에세이 『살짜쿵 활쏘기』

『살짜쿵 활쏘기』는 어린 시절 사극을 보며 활쏘기에 대

한 로망을 품었던 소년이 우여곡절 끝에 활을 잡게 된 사연, 활쏘기를 통해 얻은 교훈들, 우리 역사 속 명궁들과 전통 활의 역사, 활터(국궁장) 이야기 등 초보 공사가 활쏘기를 배우며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솔직담백하게 담아낸 책이다. 특히 활쏘기를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독자들을 위해 국궁 수련이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함을 가져다주는지 국궁을 수련하며 나름대로 체득한 바를 전달하고자 했다.

“활을 쏘보니 알겠더라. 단순히 과녁을 향해 활을 쏘는 행위를 반복한다고 나의 성격이나 삶이 확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을. 활쏘기를 통해 내가 얻고자 하는 가치를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 실천할 때, 비로소 나는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 그렇게만 된다면 활쏘기는 나의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 228쪽

누군가에게 활쏘기란 단순한 놀이이자 스포츠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내게 활쏘기는 단순한 유희가 아니다. 나에게 활쏘기란 ‘온 몸으로 역사를 기억하고 영웅들을 추모하는 행위’에 가깝다. 활 한 자루 돌려메고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가 서린 동영 한산도로, 태조 이성계의 황산대첩이 있었던 남원으로 훌쩍 떠나 그곳의 활터에서 습사(활쏘기)를 하며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르고 돌아오곤 했기 때문이다.



▲ 사진: 한산도 활터 '한산정'에서 각궁을 쏘는 저자의 모습

활쏘기로 홍범도 홍상 철거에 저항하다

『살짜쿵 활쏘기』에는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에 관한 에피소드도 등장한다. 2023년 8월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홍상 철거 소식을 접한 나는 역사학도로서 분개하여 즉각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전국 역사학도 서명운동, 용산 대통령실 앞 1인 시위 등을 전개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하여 나는 일상에서 지속적인 국민저항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내 마음의 홍범도’라는 캠페인을 제안했다. 거리에서 홍범도 장군의 티셔츠를 입고 다니거나, 책상이나 차량에 홍범도 장군의 스티커를 붙이는 등 일상에서 늘 홍범도 장군을 기억해보자는 취지였다.

캠페인 제안자로서 나는 활쏘기로 홍범도 장군을 기억하고자 했다. 내가 갖고 있는 전통 활, 각궁(角弓)의 이름을 ‘범도’로 명명한 뒤, 홍범도 장군을 기리는 전통활쏘기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대회 개최 의도는 분명했다. 활쏘기대회를 통해 백발백중 명사수였던 홍범도 장군의 무용(武勇)을 기리는 동시에 참가자들이 자연스레 홍범도 장군의 삶과 업적 그리고 홍상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한 것이다. 대회는 한양대·광운대·경희대·인덕대·한성대·서울여대·세종대·덕성여대·성신여대·서울과학기술대 등 서울권 대학 국궁동아리 학생들과 공향정·석호정 등 서울권 활터 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황을 이뤘다. 특히 단체전 1등에게는 ‘홍범도상’이라는 특별한 이름의 상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이날 깜짝 손님으로 대회장을 찾은 우원식 (사)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現 국회회의장)은 참가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몸소 활쏘기를 체험해보기도 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대회에 참가한 공사들로부터 홍범도 홍상 철거 반대 서명을 받

아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에 전달했다는 사실이다. 이런 우리의 노력은 마침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탄핵과 육사의 홍범도 홍상 철거 백지화로 결실을 맺었다.

“2024년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빛의 혁명’으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서면서 육사의 홍범도 홍상 철거 시도는 완전히 백지화됐다. 그러나 여전히 내 1호 각궁의 이름은 범도다. 불의하고 무도한 정권에 맞서 싸워 이겼다는 승리의 상징으로 간직하며 홍범도 장군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억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오늘날 나는 한 발 한 발 기세를 실어 과녁으로 힘차게 화살을 날려 보내고 있다.” - 69~70쪽



▲ 사진: ChatGPT로 만든 ‘활 쏘는 홍범도 장군’

전통활쏘기에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길

한편 『살짜쿵 활쏘기』에는 개발 논리에 밀려 사라져가는 활터들, 일제 군국주의의 산물인 궁도(弓道)라는 용어에 대한 비판, 국궁대회에서의 복장 규정 문제 등 시간이 흐를수록 역사와 전통이 무너져가는 우리 활터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우리의 소중한 국가무형유산 활쏘기가 지금 어떤 현실에 처해있는지 고발하기 위해서다.

결국 『살짜쿵 활쏘기』를 출간한 궁극적인 까닭은 전통활쏘기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함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도 한 번 활쏘기를 배워볼까’ 생각하는 독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저자로서 더 바랄 나위가 없을 듯하다. 그 옛날 나라를 지키기 위해 활을 들고 일어섰던 의병들처럼, 그들의 호국정신을 되새기며 올리는 활쏘기라는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면 어떨까.

2025년 사업보고

● 사업 목표

- 광복 80주년을 맞아 자주와 독립의 의미 성찰
-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홍범도 장군의 독립정신 선양사업 추진
- 대한민국 국군 정통성 확립 사업 추진
- 한국 이주 고려인동포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 카자흐스탄 우호교류 사업 추진

1. 독립운동 선양·기념사업

1-1. 봉오동전투 전승 105주년 기념식

가. 목적

- 홍범도 장군과 무명 독립투사들의 업적과 애국심을 선양함.
- 광복회 선정 6월의 독립운동 “봉오동전투”를 대중과 함께 기리고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김.
- 광복 80주년 기념 이종찬 회장의 전국 순회 강연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국민에 알림.

나. 주최: 국가보훈부, 광복회,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다. 주관: 광복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 전북애향본부, 생활법률문화연구원,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전주모임

라. 후원: 전북특별자치도

마. 일시 및 장소: 2025년 6월 23일 그랜드힐스턴호텔

바. 참석: 독립유공자 유족 및 지역 보훈단체 관련 인사 350여명

사. 특이사항

- 봉오동전투 국가보훈부 ‘이달의 독립운동’ 선정 및 기념패 수여

1-2. 순국 82주기 추모 및 청산리전투 전승 105주년 기념식

가. 목적

-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홍범도 장군과 무명 독립군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뜻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추진.
- 독립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애국심과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며, 올바른 역사 인식 함양.

나. 주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다. 주관: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대전모임

라. 후원: 국가보훈부

마. 일시 및 장소: 2025년 10월 25일 국립대전현충원

바. 참석: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회원 및 유관 기관·단체 등 약 50여명

1-3. 설·추석 국립대전현충원 성묘

가. 목적: 직계 유족이 없는 홍범도 장군을 기념사업회가 대신하여 추모하고, 장군의 독립전쟁 정신을 다음 세대에 계승

나. 주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다. 주관: 남양홍씨문중,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대전모임

라. 일시 및 장소: (설) 2025년 1월 30일 (추석) 10월 1일 / 국립대전현충원

1-4. 유해봉환 4주기 기념식

가. 목적: 홍범도장군 유해봉환 4주기를 계기로 독립전쟁 영웅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사회적 추모를 실천하고, 독립정신의 계승과 역사 인식 제고에 기여

나. 주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다. 주관: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대전모임

라. 일시 및 장소: 2025년 8월 18일 국립대전현충원

2. 국군 정통성 법제화·교육 사업

2-1. 광복 80주년 다큐멘터리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 제작·상영

가. 목적

- 홍범도 장군과 독립군의 항일 무장투쟁 역사를 조명함으로써
-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와 독립전쟁에 대한 국민의 역사 인식 제고
- 청년 세대의 정체성 확립
- 고려인 동포사회와의 연결 강화
- 국군 정통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통해 국군 정통성 법제화 논의의 제도적 기반 마련

나. 상영: 2025년 8월 13일 시중 극장 개봉

다. 관람 인원 수: 60,000명

라. 성과

- 독립군·독립전쟁 인식 제고
 - 독립전쟁 서사의 대중화 기여
 - 고려인 동포사회와의 역사적 연대 강화
- 마. 향후 활용 및 확산 계획
- 60분 버전 재편집
 - 학교·군·공공기관 공동체 상영 추진

2-2. 광복 8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 전국 학생 감상문 공모전

가. 사업 개요

- 주최: 광복회,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 주관: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 후원: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 공모 대상: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 접수 기간: 2025. 8. 22. ~ 9. 21.

나. 심사 결과

- 국회의장상 1명
- 광복회장상 3명
-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상 3명
- 특별상 (고려인 후손 상징성 고려) 1명

다. 시상식: 2025년 12월 24일 광복회관 대강당

라. 향후 추진 계획

전국 학교·교육기관에서의 공동체 상영을 추진하여, 역 사왜곡, 극우적·친일적 서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청소년들이 독립전쟁사를 중심으로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신적 뿌리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나라와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3. 국군 정통성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

가. 추진 배경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정신을 국군의 기본 이념에 명확히 반영하고,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과 광복군에 있음을 법률로 분명히 하여 국군의 역사적 정체성과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됨.

나. 추진 경과

- 2025. 12. 3. 광복회장을 비롯한 10개 보훈단체

장 및 독립운동기념사업회장이 참여한 국군 정통성법제화 촉구 공동 기자회견 개최

- 공동 기자회견 이후, 국군 정통성 법제화 TF를 구성하여 관련 법령 개정 검토 착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 개정안 마련
- 국군의 강령에 ‘독립군과 광복군의 자주독립정신 계승’ 명시 제안

다. 주요 내용

- 헌법 전문의 법통을 국군의 강령에 직접 반영하여 국군의 역사적 출발점을 명확히 규정
- 국군을 단순한 정부 수립 이후의 군대가 아닌, 독립전쟁과 광복군의 계승체로서 규정하는 법적 기반 마련
- ‘국민의 군대’를 국민이 스스로 나라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조직한 군대라는 헌법적·역사적 개념으로 확장 제시

라. 기대 효과

- 국군의 역사적 정통성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넘어, 독립군·광복군 계승이라는 공통 인식을 제도적으로 정립
- 장병의 역사적 자긍심과 국민의 신뢰를 동시에 제고하는 헌법적 ‘국민의 군대’ 개념의 내실화
- 호국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군 문화 조성 및 민·군 유대강화에 기여

3. 고려인 동포 권익 증진 및 역사기록 보존 사업

3-1. 고려인동포특별법 제정 추진

- 대한고려인협회 법안 초안 작성 중

3-2. 노동·생활법률 무료상담 서비스 준비

가. 목적: 국내 거주 고려인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 및 생활 관련 법률상담 지원

나. 상담 내용: 임금체불 및 임차보증금 사기 문제

다. 2025년 준비 작업 이후, 2026년 실제 상담 실시 계획

3-3. 고려인 디아스포라 기록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

가. 목적

- 고려인 디아스포라 형성과정에 대한 기록의 체계적 보존
- 국권회복과 독립운동의 국제적 역사 증거 확보

-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통한 역사적 위상 확립

- 고려인 국적회복 정책과의 전략적 연계

나. 주최/주관: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대한고려인협회,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다. 추진 내용

- 3개 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 및 기자회견 (2025년 9월 15일)

4. 체육·문화·교육 보존사업

4-1. 제5회 홍범도장군배 전국사격대회

가. 목적

-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며 열린 제5회 홍범도장군배 전국사격대회는 국가대표 선발을 겸한 전국 규모의 사격대회로서, 대회를 통해 사격선수 및 전 국민에게 홍범도 장군의 독립정신과 애국심을 널리 알리고, 이를 기리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나. 대회기간: 2025. 9. 2 ~ 9. 8 (7일간)

다. 주최주관: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 대한사격연맹

라. 참가인원: 연인원 약 3,000명 참가(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마. 대회종목: 공기소총, 공기권총, 50M 화약총, 25M 화약총, 산탄총, 10M 러닝타겟

바. 평가

- 역사 인물 기념과 전문 스포츠 대회를 결합한 대표적 보훈·체육 융합 사례로 평가

-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의 공익적 역할 및 사업 수행 역량에 대한 긍정적 평가 확보

4-2. 독립전쟁 계승 축구대회(1~3회)

가. 목적: 광복군 창설 85주년을 계기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와 신홍무관학교기념사업회가 의병·독립군·광복군으로 이어지는 독립전쟁의 역사와 정신을 생활체육을 통해 계승·확산하고자 '독립전쟁 계승 축구대회'를 기획·추진함.

나. 추진 경과

- 1차 준비대회: 2025. 6. 22. / 서울 노원구 경기기계공고 축구장

- 2차 준비대회: 2025. 9. 28. /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축구장

- 3차 준비대회: 2025. 12. 7. / 서울 노원구 육군

사관학교 축구장

- 총 3회 준비대회를 통해 대회 운영 방식, 참가 구조, 역사 콘텐츠 연계 방안을 단계적으로 점검함.

다. 성과

-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신홍무관학교기념사업회, 대한고려인협회가 참여하여 독립전쟁 계승이라는 공동 가치 중심의 생활체육 모델을 실험

- 육군사관학교 독립전쟁 영웅 홍상 참배 및 기념관 견학 등 국군 정통성과 독립전쟁 역사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참가 단체·세대 혼합 팀 구성으로 화합과 연대의 상징성 강화

- 참가자 및 관련 단체의 사업 취지 공감도와 만족도 높게 평가됨

라. 향후 계획

- 참여 단체를 최소 6개 이상으로 확대하여

- 2026. 3. 15. '독립전쟁 계승 축구 리그' 창설 추진

- 월별 리그전 운영 후 하반기 결승전 개최 목표

- 독립운동 계승 단체 및 공공·노동·청년 단체 참여 지속 확대

마. 기대 효과

- 생활체육을 통한 독립전쟁 정신의 일상적 계승

- 세대·단체·지역 간 연대 강화

- 시민 참여형 역사 기념사업 모델 정착

4-3. 국내 역사탐방(동학농민혁명 유적지)

가. 목적: 독립전쟁의 역사적 뿌리와 민중 항쟁의 의미를 이해하고, 의병·독립군으로 이어지는 항일 투쟁의 계보를 재조명

나. 일시: 2025. 4. 25. ~ 4. 26.

다. 장소: 전북 정읍·김제·전주 일원

라. 참가 인원: 총 33명

마. 협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바. 주요 내용

-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및 주요 유적 답사

- 전문가 해설을 통한 동학농민혁명과 독립전쟁의 역사적 연계성 이해

- 회원·이사진·고려인 동포가 함께 참여하는 역사 연대의 장 마련

사. 종합 평가

- 독립전쟁의 기원과 민중 항쟁의 의미를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계기 마련

- 기념사업회 구성원 간 역사 인식 공유 및 결속력 강화

- 향후 독립전쟁기념공원 조성 검토를 위한 기초 참고 자료 확보

4-4. 해외 역사탐방(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가. 목적

- 홍범도 장군의 활동 무대를 직접 답사하여 역사적 의미 체험

-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형성과 삶에 대한 이해 증진

- 유해 봉환 후속 사업 점검 및 협력 방안 모색

나. 기간: 2025. 10. 30. ~ 11. 4.

다. 장소: 카자흐스탄 알마티·크즐오르다 일원

라. 참가인원: 총 20명(기념사업회 임원, 대한고려인협회 임원, 교사노동조합 관계자 등)

마. 주요 내용

- 홍범도 장군 기념공원 및 기념관 참배

- 홍범도 거리, 고려극장, 고려인 관련 주요 역사 현장 방문

- 다큐멘터리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 관련 감사패 수여

- 고려인 동포 간담회 및 다큐멘터리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 단체 관람

- 카자흐스탄 현지 역사·문화시설 견학

바. 성과

- 독립전쟁과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역사적 연속성에 대한 현장 이해 제고

- 고려인 사회와의 민간 교류 및 연대 강화

4-5.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 견학

가. 목적

- 독립전쟁 영웅 홍범도 장군의 이름을 계승한 홍범도함 방문을 통해 독립정신의 현대적 의미를 확인

- 대한민국 해군의 역사·임무·안보 역량에 대한 이해 증진

- 시민사회와 군 간의 교류 확대 및 국군의 헌신에 대한 공감대 형성

나. 일시: 2025. 11. 13.(목) ~ 11. 14.(금)

다. 장소: 창원 진해 해군기지 일원

라. 참가 인원: 총 25명

마. 주요 내용

- 잠수함사령부 및 잠수함 역사관 견학

- 손원일급 잠수함 내부 견학 및 임무 설명 청취

- 수상함(정조대왕함급) 견학

- 해군사관학교(박물관, 거북선 등) 견학

-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홍범도함 승조원 간 소통의 시간 운영

바. 성과

- 홍범도 장군의 독립정신이 현대 해군의 사명과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

- 잠수함·수상함 견학을 통해 해군의 전략적 역할과 해양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기념사업회와 홍범도함 승조원 간 상호 존중과 공감의 계기 마련

4-6. 전국교사노동조합연맹 MOU 체결

가. 목적: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올바른 독립전쟁 역사 교육을 추진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 활동을 통해 독립전쟁 정신과 민족정신을 계승·발전

나. 체결일: 2025. 8. 26.

다. 주요 협력 내용

- 교사 연수 및 학교 현장 중심의 독립전쟁 역사 교육 협력

- 교사·학생 대상 독립전쟁 역사 현장 탐사 사업 공동 추진

- 독립전쟁 역사 관련 도서 기획·발간 및 교육 자료 제작

-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한 기타 공익적 교육·기념사업 추진

라. 체결 의의 및 기대 효과

- 학교 교육 현장과 민간 기념사업 간 협력 체계 구축

- 청소년 대상 독립전쟁 역사 교육의 체계화 및 지속성 확보

- 교사 참여 기반의 교육 콘텐츠 확산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향후 독립전쟁 관련 출판·교육·기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 마련

마. 향후 활용 계획

- 고려인 청소년·국내 청소년 대상 독립전쟁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

- 교사 연수 및 수업 활용 자료 제작·보급

5. 학술·연구·출판

5-1. 학술회의(이청천, 김승빈, 홍범도일지 상의 동지들)

가. 목적: 홍범도 장군의 순국 82주기와 청산리전투 전승 105주년을 기념하여, 홍범도 장군과 그의 동지들(이청천·김승빈)의 항일 무장투쟁을 학문적으로 재조명하고, 독립전쟁사의 역사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정리·확산

나. 일시: 2025년 11월 21일

다.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라. 주요 내용

- 주제: 홍범도와 그의 동지들(이청천, 김승빈, 『홍범도일지』상의 동지들)
- 주제 발표
 - (1) 1920년대 초반 이청천의 항일무장투쟁
 - (2) 「1920년 독립전쟁」 전후 시기 김승빈의 독립운동 활동과 성격
 - (3) 홍범도와 그의 동지들 - 『홍범도일지』의 기록을 중심으로

마. 향후 활용 계획

- 현재까지의 학술회의의 발표 내용을 단행본으로 발행하여 독립전쟁 관련 연구 자료 및 교육 자료로 활용
- 독립전쟁기념공원 조성 및 전시·교육 콘텐츠 기획에 학술적 근거로 활용

5-2. 홍범도아카데미 포럼 (1~3회)

가. 목적

- 홍범도 장군과 독립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
- 독립전쟁기념공원 조성, 고려인 언론·사회사 연구 등 현안에 대한 공론화
- 국내외 연구자·전문가·시민사회 간 학술 교류 및 인식 확산

나. 2025년 운영 횟수: 총 3회

다. 행사 성격: 홍범도아카데미가 주관이 되어 독립전쟁사·고려인 디아스포라 연구 확산을 위한 학술·정책 연계 포럼

라. 포럼별 개최 내용

(1) 제1회 홍범도아카데미 포럼

- 주제: 독립전쟁 기념공원 필요성
- 일시·장소: 2025. 7. 18. /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 주요 내용: 대한독립군 유고문 해제(解題)를 통한 독립전쟁 서사 정리

독립전쟁기념공원 건립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정책적 논의

- 의의: 독립전쟁기념공원 조성의 학술적·사회적 필요성 공론화

(2) 제2회 홍범도아카데미 포럼

- 주제: 독립운동가 출신 고려인 언론인과 민족 언론(『선봉』 『레닌기치』 『고려일보』)
- 일시·장소: 2025. 10. 24.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주요 내용: 고려인 언론의 형성과 독립운동 계승 역할 분석
- CIS 지역 고려인 언론의 역사적 의미와 현대적 과제 조명

- 의의: 독립운동과 고려인 디아스포라 언론사를 연결한 국제적 시각 제시

(3) 제3회 홍범도아카데미 포럼

- 주제: 1920~1930년대 러시아 한인사회와 스탈린 시대
- 일시·장소: 2025. 12. 29. / 광복회관 대강당
- 주요 내용: 스탈린 시기 러시아 한인사회의 형성과 탄압
- 독립운동가·한인 사회사의 구조적 이해 심화
- 의의: 독립전쟁 이후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까지 포괄하는 연구 확장

마. 향후 활용 계획

- 포럼 내용을 독립전쟁기념공원 조성 논의 및 관련 정책 제안 자료로 활용
- 고려인 청소년·국내 청소년 대상 교육 콘텐츠 개발에 반영

6. 유해봉환 후속사업

6-1. 크즐오르다 홍범도 장군 기념공원 및 기념관 운영 상황 파악

- 국가보훈부 지원
- 크즐오르다 고려인협회 건설 및 운영 중

6-2. 크즐오르다 대학교 지능정보대학 운영 협력

- 교육부 지원
- 서울과기대 운영 중

2026년 사업계획

● 사업 목표

- 홍범도 장군 독립전쟁 정신과 업적 선양
- 국군의 정통성·정체성 정립을 위한 법·제도적·교육적 기반 강화
- 한국 거주 고려인 동포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 고려인 사회 및 미래세대와의 연대를 통해 보존의 사회적·국제적 가치 확장

1. 독립운동 선양·기념사업

1-1. 봉오동전투 전승 106주년 기념식

가. 목적: 봉오동전투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독립전쟁이 국권 회복 과정에서 갖는 역사적 의의와 민족 자존의 가치를 계승함.

나. 일시 및 장소: 2026년 6월 5일 / 국회

다. 참석: 100명

1-2. 순국 83주기 추모 및 청산리전투 전승 106주년 기념식

가. 목적: 홍범도 장군의 순국을 추모하고 청산리전투의 전승 의미를 통합적으로 기념

나. 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23일

국립대전현충원

다. 참석: 50명

1-3. 설·추석 국립대전현충원 성묘

가. 목적: 유족이 없는 독립전쟁 영웅 홍범도 장군에 대한 사회적 추모 책임 실천

나. 일시 및 장소: (설) 2026년 2월 18일

(추석) 2026년 9월

국립대전현충원

다. 주관: 남양홍씨문중, 대전모임

1-4. 유해봉환 5주기 기념식

가. 목적: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후속사업 방향 공유

나. 일시 및 장소: 2026년 8월 18일 / 국립대전현충원

다. 주관: 대전모임

1-5. 독립전쟁 기념관(기념공원) 타당성 조사

가. 국가보훈부 추진

나. 독립전쟁 기념관 부지 선정 후 타당성 조사 용역
다. 타당성 조사 시 기념사업회 자문 참여

2. 국군 정통성 법제화·교육 사업

2-1.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 60분 버전 공동체 상영

가. 목적: 전국 군·학교·시민단체 등에서의 공동체 상영을 추진하여,

- 역사왜곡, 극우적·친일적 역사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 군인들과 청소년들이 독립전쟁사를 중심으로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며,
-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신적 뿌리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 나라와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교육적 기반을 마련

나. 일시: 2026년 3월부터 연중

다. 기대효과:

- 몰입도 높은 60분 이내의 시청각 콘텐츠를 통한 교육 효과 극대화
- 국군 정통성 법제화 논의의 사회적 기반을 조성

2-2. 국군 정통성 관련 법률 개정 추진

가. 관련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나. 개정안: 제5조(국군의 강령)에 ‘국군은 독립군과 광복군의 자주독립정신을 계승한 국민의 군대이다.’ 신설

3. 대한고려인협회 협력 사업

3-1. 고려인 디아스포라 기록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 진행

가. 목적

- 분산된 고려인 기록을 국제 기준에 맞게 정리·통합
- 공동등재 서사에 대한 학술적 합의 형성
- 등재신청서 초안 마련을 통한 제출 준비 완료

나. 2026년 사업 주요 내용

- 국제 컨퍼런스를 통한 학술적 정리 및 합의 도출
- 카자흐스탄·러시아 등 국가별 기록 인벤토리 확장
- 기록물 사용 동의 확보 및 권리 체계 정비
- 유네스코 등재신청서(국·영문) 초안 작성

다. 사업 기간: 2026년 3월 ~ 11월

(2027년 등재 신청 추진 목표)

라. 기대 효과

- 고려인 독립운동 및 디아스포라 기록의 체계적 보존 기반 구축
- 국제 공동등재를 통한 역사적 가치의 세계적 공유
- 연구·교육·전시 등 공공 활용 확대

3-2. 청소년 대상 도서 <홍범도 장군 이야기> 출판 및 배포

가. 목적

- 홍범도 장군의 독립전쟁 활동과 고려인 강제이주, 중앙아시아 정착 과정을 연속된 역사로 조명
- 청소년들이 독립전쟁의 공간적 확장과 디아스포라 형성을 맥락 속에서 이해하도록 지원
- 고려인 청소년에게는 역사적 자긍심을, 비고려인 청소년에게는 상호 이해와 공감의 기반을 제공

나. 내용

- 러시아 연해주·간도 지역 독립전쟁의 역사적 전개
- 홍범도 장군의 항일무장투쟁과 이후 강제이주 과정
- 고려극장, 고려인 음식 등 고려인 문화 소개
- 독립전쟁과 디아스포라 역사의 연속성 및 현대적 의미

다. 발간 개요

- 분량: B5 250페이지
- 발간 부수: 1,000부
- 한국어판 및 러시아어판 동시 제작

라. 기대 효과

- 청소년의 주체적 역사 인식과 비판적 사고력 함양
- 독립전쟁과 우리 군의 역사적 정통성에 대한 이해 제고
- 고려인과 한국 사회가 공통의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재확인하는 계기 마련

3-3. 고려인동포특별법 제정 추진

3-4. 노동생활법률 무료상담 서비스 진행

4. 체육·문화·청소년 보훈사업

4-1. 제6회 홍범도장군배 전국사격대회

가. 목적: 독립전쟁 정신의 현대적 계승

나. 일정 및 장소: 2026년 6월 5일~11일 / 충북 청주시

다. 개최식: 2025년 6월 5일

라. 국가대표 및 국제대회 참가선수 선발전

마. 특이사항:

- 카자흐스탄 선수(고려인 선수 포함) 10명 초청
- 별도로 수상자 25명 정도 축하의 자리 마련(지도자와 함께 총 50명 초청)

바. 기대효과: 보훈과 체육의 결합

사. 향후 계획

- 2027년부터 그랑프리(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대회) 추진
- 보훈부 연례 사업화(단, 홍범도 장군 정신 선양 유지)
- 대표 보훈 스포츠 브랜드화

4-2. 독립전쟁 선양 축구대회

4-3. 역사탐방

- 상반기 중 MT 형식으로 국내 1회 실시
- 해외탐방은 격년 또는 3년에 1회로 변경

5. 학술·연구·출판

5-1. 학술회의

- 가. 학술회의명: 1910~1920년대 북만주-러시아 지역 주요 독립운동단체들의 항일무장투쟁

나. 목적

- 1910~1920년대 북만주 및 러시아 지역 독립운동단체의 항일무장투쟁을 체계적으로 정리
- 그간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으나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는 쟁점과 미진한 영역을 실증적으로 규명
- 독립전쟁기념관 및 기념공원 조성 논의에 부응하는 학술적 기반 자료 축적

다. 일정 및 장소: 2026년 11월 6일 / 국회

5-2. 홍범도아카데미 포럼

- 2026년 연 4회 예정

5-3. 소식지 발행

- 2026년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발행

6. 유해봉환 후속사업

6-1. 크즐오르다 홍범도 기념공원 및 기념관 운영 지속 파악

6-2. 크즐오르다 대학교 지능정보대학 운영 지속 협력

기념사업회 소식/행사 01

2025년 송년회



우리 기념사업회는 2025년 12월 29일 광복회관 대강당에서 2025년 송년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송년회는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주요 사업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함께해 준 기관·단체 및 회원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2026년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광복회, 대한고려인협회, 대한사격연맹, KT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다큐멘터리 <독립군: 끝나지 않는 전쟁> 제작진 등 여러 기관과 단체가 함께하여, 2025년 한 해 동안 축적해 온 활동의 의미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 온 노고를 서로 격려하며, 내년에도 독립전쟁 정신의 계승과 국군 정통성 확립을 위한 사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뜻을 함께 나누었다.

기념사업회 소식/행사 02

독립운동단체연합 2026년 신년 참배



독립운동단체연합은 2026년 1월 2일 오전, 새해를 맞아 독립선열들께 신년 참배를 올리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참배에는 독립운동 관련 단체 대표와 실무자들이 함께하여, 한 해의 시작을 독립정신 계승의 다짐으로 열고자 하였다.

참석자들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 후, 임시정부요인기념비, 대한독립군무명용사위령탑 등 관련 추모 공간을 차례로 찾아 헌화와 묵념을 올리며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효창공원으로 이동하여 의열사 참배를 마친 뒤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기념사업회 소식/행사 03

설날 성묘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는 2026년 2월 18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홍범도 장군 묘역에서 설날 성묘를 엄숙히 거행하였다.

홍범도 장군께서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치셨으며, 그 과정에서 부인과 두 아들을 모두 잃는 깊은 아픔을 겪으셨다. 오늘날 장군님의 뜻을 이어 제를 올릴 직계 유족이 남아 있지 않기에, 설 명절을 맞아 후손 된 우리가 장군의 삶과 희생, 그리고 독립을 향한 굳은 의지를 기억하고자 성묘를 올렸다.

이날 성묘는 “우리 모두 홍범도 장군님의 후손입니다”라는 다짐 속에 진행되었다. 대전모임 회원들이 성묘 준비 전반을 정성껏 맡아 주었고, 대전충남 KT노조 지부에서도 함께 참석하여 뜻을 더하였다.

참석자들은 차례를 올리고 절을 하며 장군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조용한 마음으로 감사와 존경을 올렸다.

기념사업회 소식/행사 04

2026년 정기총회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는 2026년 2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총회에서는 2025년도 사업보고와 결산, 감사보고서가 보고되어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이어 202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도 심의·의결되었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는 앞으로도 홍범도 장군의 업적과 독립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회원 동정



박홍근 이사장

박홍근 이사장은 지난 한 해 동안 내란·계엄을 극복하고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키는 데 앞장섰다. 이재명 정부 출범 과정에서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장을 맡아 새 정부의 청사진을 만들었다.

광복 8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 제작 지원과 홍범도장군배 전국사격대회, 홍범도아카데미 포럼 등을 통해 역사 선양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3월 2일 박홍근 이사장을 이재명 정부의 예산 정책을 총괄할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국가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국민주권정부의 청사진을 그려온 책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홍성종 이사

홍성종 이사(남양홍씨 남양군파 회장)는 선조의 문집을 번역·출간하는 작업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홍춘경의 문집을 새롭게 간행하였다. 홍춘경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명중(明仲), 호는 석벽(石壁)으로, 1497년에 태어나 1522년에 생원시에 급제하고, 1536년 문과증시에 장원을 하여 도승지(都承旨), 예조참의(禮曹參議)에 올랐다. 성절사(聖節使)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이후 좌승지, 이조참의, 황해도 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홍춘경이 쓴 시 『낙화암(洛花巖)』은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백마강변의 낙화암 고란사에 걸려 있었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파산하이석시(國破山河異昔時) 나라 망하니 산하는 옛날과 다른데
 독류강월기영후(獨留江月幾盈虧) 홀로 강위에 달이 남아 몇 번이나 차고 기울었다
 낙화암상화유재(落花巖畔花猶在) 낙화암 위의 꽃은 아직도 남아있으니
 풍우당년부진취(風雨當年不盡吹) 비바람 그 당시에 다 불어 떨어뜨리지 못하였나

회원 동정



김우진 이사

김우진 이사(케이잡스(주) 대표이사)는 2025년 7월 22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창립 26주년 기념식에서 '모범여성기업인'으로 선정되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번 기념식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주관으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되었으며,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김 대표는 여성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케이잡스㈜는 재취업 지원, 커리어 컨설팅, HR 솔루션 개발 등 고용 서비스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해 왔으며, 특히 청년과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취업 자원과 AI 기반 채용 플랫폼 개발을 통해 고용 생태계 발전에 힘써 왔다. 김우진 대표는 “함께한 구성원들의 노력의 결실”이라 밝히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소감을 전하였다.



정영순 이사

정영순 이사(대한고려인협회 회장)은 2025년 10월 31일, 대한고려인협회를 대표하여 제18회 노근리 평화상 인권상을 수상하였다. 노근리 평화상은 노근리국제평화재단이 제정한 상으로, 인권과 평화의 가치 확산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대한고려인협회는 국내 거주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 정착과 권익 증진, 공동체 통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협회는 2018년 창립 이후 고려인 동포의 법·제도 개선을 비롯해 상담·교육·직업 지원, 청년 세대 육성, 지역 사회 협력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증가하는 이주 동포 사회의 현실 속에서 인권 보호와 사회적 통합의 중요성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고려인 동포 사회의 공적 활동이 인권과 평화의 가치 측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이다.

회원 동정



이명우 이사

이명우 이사(전 평안남도 지사)는 2025년 11월 1일부터 시작된 제22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이북5도 부의장으로 선임되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근거하여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헌법기관으로, 이북5도 부의장은 실향민 사회와 이북도민 관련 단체를 아우르며 통일 공감대 확산과 정책 자문 활동을 수행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반병률 이사

반병률 이사(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흥범도아카데미 원장)는 2025년 11월 11일, 제7회 우당상 시상식에서 우당학술상을 수상하였다. 우당학술상은 독립운동 관련 학문 연구를 통해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학술적 성과를 축적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반 교수는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사 연구를 비롯해 흥범도 장군 관련 연구에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오랜 기간 독립운동사의 공백을 메우고 학문적 지평을 확장해 온 반 교수의 연구 성과는 우리 독립전쟁사의 이해를 한층 심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노송달 이사

노송달 이사(전 대한고려인협회 회장)는 2025년 11월 20일, 제19회 세계한인의 날을 맞아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번 전수식은 재외동포청 주관으로 인천 청사에서 개최되었으며, 노 회장은 국내 거주 독립국가연합(CIS) 출신 고려인 동포 사회의 조직화와 권익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노 회장은 2018년 대한고려인협회 설립을 주도하여 국내 고려인 동포 사회가 공식적인 대표 체계를 갖추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간 개별적으로 다루어지던 정착·노동·교육·사회복지 문제를 제도권과의 협력을 통해 체계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협회는 이후 한국어 교육, 청소년·청년 지원, 지역 정착 프로그램, 문화·역사 교류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표창은 국내 고려인 동포 사회의 공적 활동이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사례로 평가된다.

회원 동정



김대식 이사

김대식 이사(전 카자흐스탄 대사)는 2025년 11월 24일 서울 풍산빌딩에서 열린 '서울국제포럼'에서 '2025 영산외교인상'을 수상하였다. '영산외교인상'은 국제무대와 외교 현장에서 국익 증진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매년 서울국제포럼이 경제·외교·문화 등 각 분야의 공로자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김 전 대사는 재임 당시 카자흐스탄 크즐 오르다에 안장되어 있던 홍범도 장군 유해의 국내 봉환을 정부에 건의하고, 카자흐스탄 정부 및 현지 고려인 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협상을 마무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장군의 유해는 2021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조국으로 봉환되었으며, 이는 독립전쟁사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



김성민 이사

김성민 이사(건국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는 2026년 1월 30일 중국 선양에 부임하여 주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 총영사로서의 공식 업무를 시작하였다. 부임 첫 일정으로 '무오독립선언 10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선양 민주평통이 주최하였으며, 선양시를 비롯해 랴오닝성·지린성·헤이룽장성 등 동북 3성에서 거주하거나 활동 중인 한인 및 재외국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선양과 동북 3성 일대는 우리 독립운동사와 깊은 연관을 지닌 지역으로, 중국 내 항일 역사유적지의 약 60% 이상이 이 지역에 분포해 있다.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지역 항일 사적지 보존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역사적 의미와 외교적 중요성을 함께 지닌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2025년 2월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도 이 지역을 방문한 기록이 있어, 우리 독립운동사와 관련된 교류와 관심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임 이사 인사



강태규 이사 - 성수의료재단 부원장

저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끝자락에서 태어나 지난 40여 년간 한눈 팔지 않고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평범한 시민이자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공공기관에서 36년간 근무하며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소기업 현장에서 자금 지원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기업들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주말을 반납하고 현장을 지켰던 경험은 제게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더욱 깊게 새겨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1987년 민주화의 현장에서 직접 참여했던 기억은 자유와 책임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삶의 중요한 이정표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저는 홍범도 장군기념사업회 이사로서, 독립전쟁의 역사와 홍범도 장군의 정신이 올바르게 계승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기념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힘을 보태며, 우리 공동체의 역사적 자산이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용하지만 책임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념사업회의 발전과 독립정신 선양을 위해 성실히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기 이사 - SK증권 파생상품본부장

여의도에서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숫자와 수익률에만 몰두해온 제게, 장군님을 기리는 소임은 매우 특별한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장군님의 숭고한 독립 정신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순국선열의 뜻을 널리 알리는 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신임이사로서 사업회의 발전을 위해 진심으로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내 주신 정성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후원회원

(사)한국마트협회 (주)비티에스웨스턴 ㈜세움씨엠 교사노동조합연맹 강경아 강경아 강다현 강상철 강석령 강성진 강승희 강연승 강윤석
강윤주 강지연 강태영 계민경 고재웅 고재열 고희탁 광도태 구분한 권영희 권재석 길인석 김강식 김가성 김경미 김경민 김관표 김금자
김기정 김남주 김대환 김도형 김동준 김리사 김림마 김미란 김미선A 김미선B 김미자 김미희 김민경 김병대 김병우 김복수 김생환 김선주
김선자 김성숙 김성순 김성애 김성한 김성현 김성훈 김수현 김신애 김양미 김연진 김영숙A 김영숙B 김영순 김영우A 김영우B 김옥주 김옥찬
김용경 김용봉 김용현 김유미 김은정 김재림 김정미 김정숙 김정옥 김중민 김중순 김중철 김주희 김준수 김준호 김지연 김지현A 김지현B
김지현C 김진경 김철순 김태영 김태원 김태환 김필영 김한희 김향우 김행하 김혁중 김형민 김형수 김홍영A 김홍영B 김효진 김홍태 김희진
나현철 남경래 남기범 남도현 남한우 노연미 노용기 류현승 문상영 문태현 민기식 민병권 민태권 박경희 박국진 박기수 박기호 박남수
박득준 박명수 박민범 박범창 박상건 박상노 박서진 박선원 박성현 박수연 박순천 박연희 박은용 박재걸 박재묵 박재학 박점조 박정식
박정훈 박종민 박종원 박준영 박준희 박지호 박지훈 박진규 박철완 박해선 박형동 박혜리 박혜원 박희보 방선자 방은정 방학진 배경수
배상철 배영실 배효연 배장현 백지현 백진아 변경남 변성욱 부유환 서대용 서동진 서동훈 서병일 서영준 서용석 서유택 서태형 석진경
석해경 성원용 손여록 손정아 송국영 송동화 송만규 송상영 송용래 송용호 송윤숙 송인한 송잔나 송정화 송창현 신경화 신길웅 신소봉
신원준 신정임 신춘규 신현석 신현수 심규상 심찬구 안성은 안영수 안태일 안훈찬 양달막 양덕춘 양시모 양인철 양준혁 엄기인 엄인순
엄준호 여상연 오세호 오슬기로 오정은 오창환 우경숙 우문식 우은영 위행복 유광석 유봉석 유숙현 유인권 유재형 유정은 유혜윤
윤강희 윤아영 윤여영 윤여인 윤진희 이강수 이경희 이광행 이기욱 이기원 이기환 이남정 이대호 이도철 이만홍 이명수 이미향 이민정
이민철 이병국 이상걸 이상석 이상진 이상대 이상태 이수은 이수홍 이숙화 이순자 이승룡 이승준A 이승준B 이영선 이원준 이우영 이원정
이윤일 이은영 이인복 이인숙 이재학 이정원 이정화 이종식 이주영 이지연 이진수 이창현 이춘호 이춘배 이태훈 이한열 이해서 이해석
이해형 이형운 이형철 이희란 이희자 이희진 인미동 임나탈리아 임상범 임성욱 임수환 임재영 임준수 임춘희 임현철 장경주 장경진
장상숙 장승희 장서원 장이근 장진섭 장창섭 장현우 전광출 전대중 전명자 전상철 정동준 정병훈A 정병훈B 정승일 정영희 정영태 정유선
정은수 정인택 정일수 정재한 정준수 정지석 정진상 정찬화 정채숙 정태진 정현식 정희선 제욱명 조광환 조국환 조선영 조성기 조성애
조성철 조연길 조영민 조영익 조영환 조장선 조현태 조해경 조희경 주미희 주성권 지재욱 지영소 지영순 진경모 채계순 채선규 채인묵
천상영 천현경 최기욱 최민정 최성길 최연희 최영민 최영순 최용환 최은미 최재형 최정준 최종진 최철한 최철호 최춘희 최창규 최홍열
하기호 한남하 한남희 한영우 한재원 한판준 허분옥 허신용 허상준 허 훈 홍경표 홍광기 홍성주 홍안나 홍재원 홍진표 홍정희 홍종영
홍지영 홍진우 홍창식 황경선 황덕순 황명섭 황은주 황중섭 황준환 황희연 황희준

임원

이 사 장 | 박홍근 국회의원
명예 이사장 | 이종찬 광복회 회장
2대 이사장 | 우원식 국회의원장
부 이사장 | 부윤경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前)
고 문 | 황원섭 우당교육문화재단 상임이사
감 사 | 김종욱 변호사(법률사무소 울진)
상 임 이 사 | 홍순계 IBK연금 감사(前)
사 무 총 장 | 한동건 (주)태백자원개발 대표
문화예술위원장 | 정내하 (주)미네랄하우스 대표
편 집 위 원 장 | 박석봉 육군사관학교 교수(前)
아 카 데 미 원 장 | 반병를 한국외대 사학과 명예교수
역사탐방위원장 | 김종욱 변호사(법률사무소 울진)
고려인동포위원장 | 홍순계 IBK연금 감사(前)
재 정 위 원 장 | 부윤경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前)

이사

강 철 한경국립대학교
컴퓨터응용수학부 교수
강태규 성수의료재단 부원장
김광중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김기수 (제)농생명재단 이사장
김대식 카자흐스탄 대사(前)/
전북국제협력지원 원장
김동완 동국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 교수
김범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前)
김선업 오산대학교 보컬 K-POP
컨텐츠학과 겸임교수
김선현 오토그룹 회장
김성민 중국 선양 총영사
김성현 SM그룹 전무
김승기 SK증권 파생상품본부장
김영진 국회의원
김우진 K잡스 대표이사
김인관 KT노동조합 위원장
김재현 ㈜이엔플러스 상임고문
김제선 대구 중구청장
김준목 (사)혁신경제 이사장
김 찬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무총장
김한수 ㈜랩큐 대표이사
남궁환 법무법인 청ulon 금융전문위원
남우기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회장
노승달 대한고려인협회 회장(前)
노정래 KH환경 대표이사
류경기 서울 중랑구청장
문준우 ㈜홀로이스 기술위원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
박드미트리 흥법도장군기법사업회 카자흐스탄지사장
박주민 국회의원
박준수 한국바이오투자파트너스 부사장
박화영 베이스캠프 대표
변재용 한술교육그룹 회장
성승용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역학 교수
소민안 지정노무법인 부대표 노무사
신경애 사랑의친구들 이사
안태호 한국전기감리협의회 부회장/
㈜선화인앤씨 대표
오광영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
오세중 해오름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오승록 서울 구청장
오현석 한국주택금융공사 본부장(前)
원재환 아주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유경애 로컬푸드 토크 대표
유사원 한예종 한국예술학과 겸임교수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前)
유희태 전북 완주 군수/
일문구자 선양사업회 회장
윤여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윤후덕 국회의원
이경철 노원구의회 의장(前)
이명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북5도 부의장
이민걸 서울중앙중구단 구단주
이영희 애지모 수석운영위원
이요섭 ㈜쿠도해양기술 대표이사
이재호 주식회사 토달 대표
이중혁 한국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이진규 서울특별시 하키협회회장(前)
이행란 애지모 공동대표
이항구 지정노무법인 대표
장순열 중앙문화원 원장
장항규 완주군 독립운동기념관 관장
정광근 ㈜미르나인 대표
정상도 ㈜키즐코리아 대표
정성호 법무부장관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 회장/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객원교수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
정우기 청강문화산업대 교수(前)
정재홍 감정평가사(나라감정평가법인)
조상호 변호사
채예진 (사)고려인글로벌네트워크 이사장
최병선 전북대학교 총동창회장 /
최치과의원 원장
한승관 특허법인 빛과소금 대표변리사
한종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홍성덕 독일대사관 공사(前)
홍성중 남양홍씨 남양군파 회장
홍이표 애지모 공동대표
홍재구 남양홍씨 대중중 종양중회 회장
홍지희 ㈜태광위너 대표
황운하 국회의원/
만신재호선생기념사업회 공동대표